

# 농업·농촌경제 동향 : 2001년11월

2001년 12월 08일

## < 목 차 >

- I. 일반경제 변화와 동향
- II. 농업·농촌경제변화 동향
- III. 품목별 수급동향
- IV. 지역 언론 동향
- V. 이 달의 집중분석 :  
2001년 농가소득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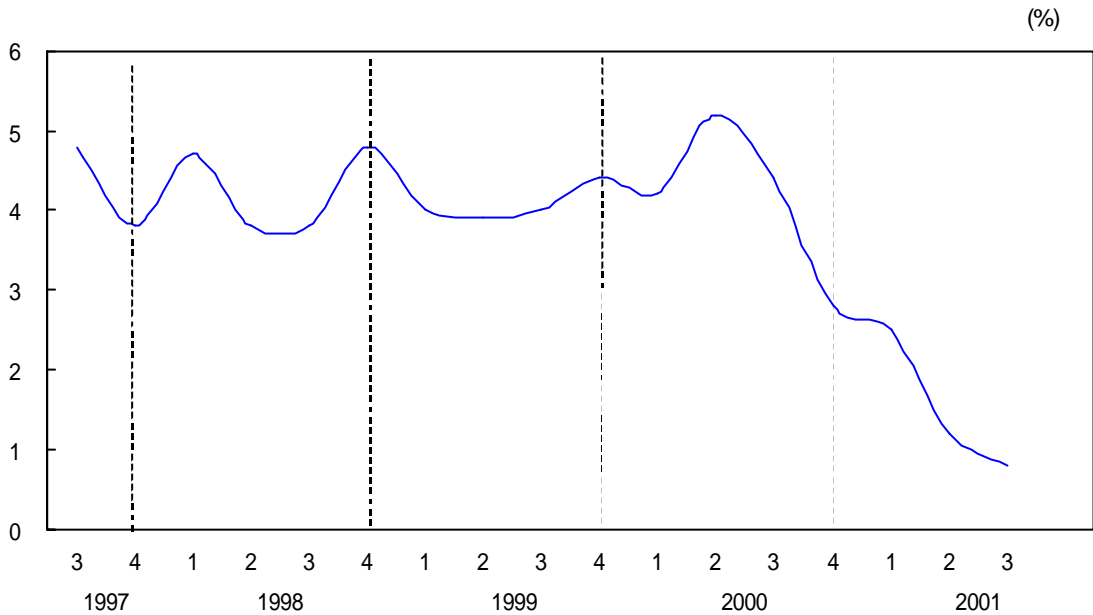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I. 일반경제 변화와 동향

# 1. 주요 선진국의 경제동향

## □ 미 국

< 경제 성장률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8%)** 3/4분기 실질 GDP 성장은 소비 및 정보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과 수출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8%에 그침.
-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계속되는 경기저점 통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 10월 산업생산은 139.3을 기록하여 13개월 연속 하락, 소비자 신뢰지수도 85.5를 기록하여 2개월 사이에 28.5p나 하락, 실업률은 9월 테러사태이후 대량해고를 반영하여 전월대비 0.5%p 상승한 5.4%를 기록.
- **(경기선행지수 소폭 상승 반전)** 10월 경기선행지수는 109.4로 전월대비 0.3p 상승하여 내년 중반이후 경기회복 기대감.
- **(11월 6일 연준금리 인하 : 2.5% → 2.0%)** 12월 중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대두.

**<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 : 전기대비 증감률 >**

	2000년	200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질GDP <sup>1)</sup>	4.1		1.2			0.8	
산업생산 <sup>2)</sup>	147.0	144.2	142.8	142.7	142.2	140.8	139.3
경기선행지수	109.9	109.3	109.5	109.8	109.7	109.1	109.4
소비자 신뢰지수	139.0	116.1	118.9	116.3	114.0	97.0	85.5
NAPM 지수	51.6	42.1	44.7	43.6	47.9	47.0	39.8
실업률 <sup>3)</sup>	4.0	4.4	4.5	4.5	4.9	4.9	5.4

자료) The Conference Board,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1992=100, 3) 계절조정치

**□ 일 본**

**< 일본의 주요 경기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단위: %

	2000				2001			
	1/4	2/4	3/4	4/4	1/4	2/4	8월	9월
GDP 성장률 <sup>1)</sup>	10.0	0.5	△2.7	2.5	0.1	△0.8	-	-
산업 생산	6.3	7.1	5.5	4.9	△1.1	△5.7	0.8	△2.9
수출	8.7	8.9	9.2	8.8	3.2	△3.4	△9.5	△11.3
실업률	4.8	4.7	4.7	4.8	4.8	4.9	5.0	5.3

자료) 일본경제 산업성, 1) 전분기대비 증감률(연율)

- **(산업생산·수출 부진, 높은 실업률 지속)** 9월중 산업생산은 전기대비 2.9% 감소,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되어 전년동월 대비 11.3% 감소, 10월중 실업률은 5.4%로 연속 사상최고치를 기록.
- **(경제 성장 전망 하향조정)** 3/4분기 실질 GDP 성장이 전분기 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2%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속에 일본은 금년 실질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1.7%에서 △0.9%로 하향 조정.

□ 유로(Euro)지역

< 유로지역의 주요 경지지표 추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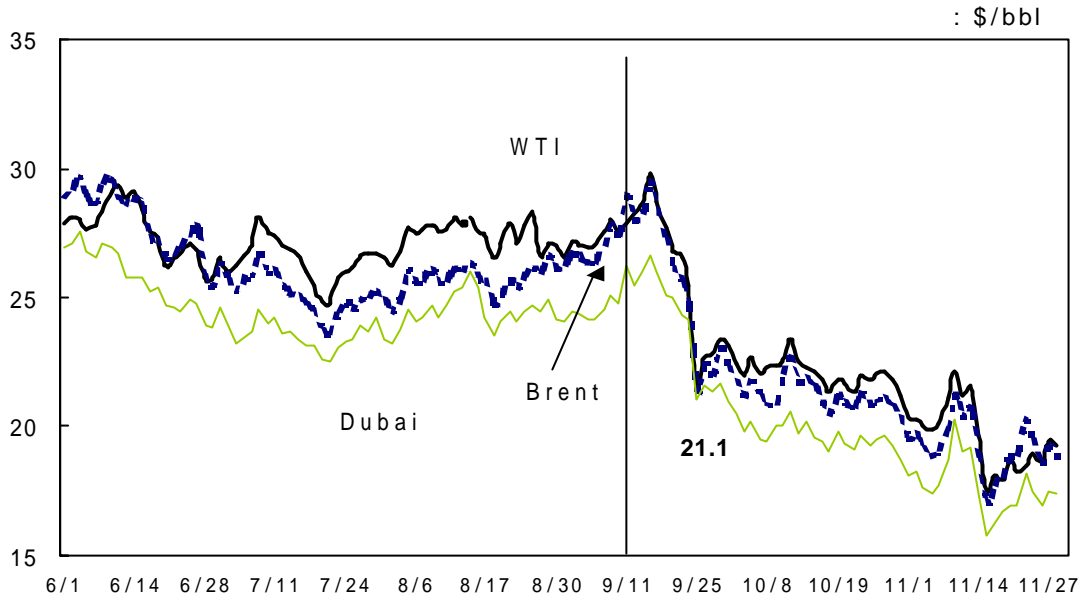
		2001						
		3월 (1/4)	4월	5월	6월 (2/4)	7월	8월	9월 (3/4)
유 로	GDP 성장률	2.4	-	-	1.7	-		1.4
	산업생산 <sup>1)</sup>	2.8	0.9	△0.1	1.8	△1.6	0.9	△0.6
	실업률 <sup>2)</sup>	8.4	8.4	8.4	8.3	8.3	8.3	8.3
독 일	산업생산	3.7	1.5	0.3	2.3	△2.3	△0.1	△2.2
	실업률	7.8	7.8	7.8	7.9	7.9	7.9	7.9
프랑스	산업생산	△0.7	1.6	1.7	2.1	0.5	3.8	0.7
	실업률	8.6	8.6	8.5	8.5	8.5	8.6	8.6

자료) EUROSTAT 1)근무일 조정치 2) 계절조정치

-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실업률 8.3% 지속) 9월중 산업생산은 내구재 생산의 대폭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전월대비 0.5% 감소, 실업률은 4개월 연속 동일한 8.3%를 기록.
- (ECB 11월 8일 기준금리 인하 : 3.75% → 3.25%)
- (3/4분기 실질 GDP 1.4% 증가) 3/4분기 유로지역의 실질 GDP 성장은 가계소비가 증가하고 투자와 무역이 감소하여 3/2분기보다 감소한 1.4%를 기록함.
- (금년 실질 경제성장 1.6% 예상) EU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 하였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3%로 하향 전망. 11월 20일 발표된 OECD 경제전망은 2002년 EU의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1.5%로 하향 조정함.

## 2. 국제유가 동향

<최근 국제유가 변동추이>



<최근 3개월 국제유가 변화 >

단 위: \$/bb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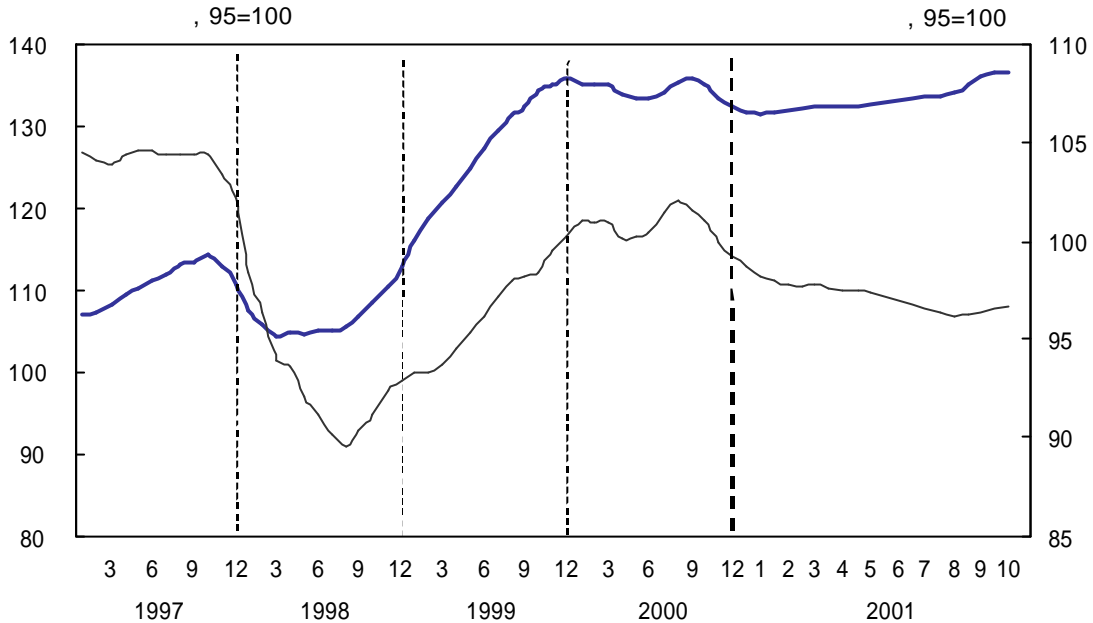
	2000			2001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b>WTI</b>	33.94	33.06	34.30	26.21 (△22.8)	22.12 (△33.1)	19.58 (△42.9)
<b>Brent</b>	33.27	31.41	32.65	25.98 (△21.9)	21.29 (△32.2)	19.24 (△41.1)
<b>Dubai</b>	30.03	30.49	30.25	24.16 (△19.5)	19.72 (△35.3)	17.69 (△41.5)

주1) 11월 28일까지 평균, 전년동월대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는 향후 세계 경제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감산여부가 유가 변동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11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41.5% 하락한 17.69달러를 기록.

### 3. 경기 동향

< 경기종합지수 추이 >



< 경기종합지수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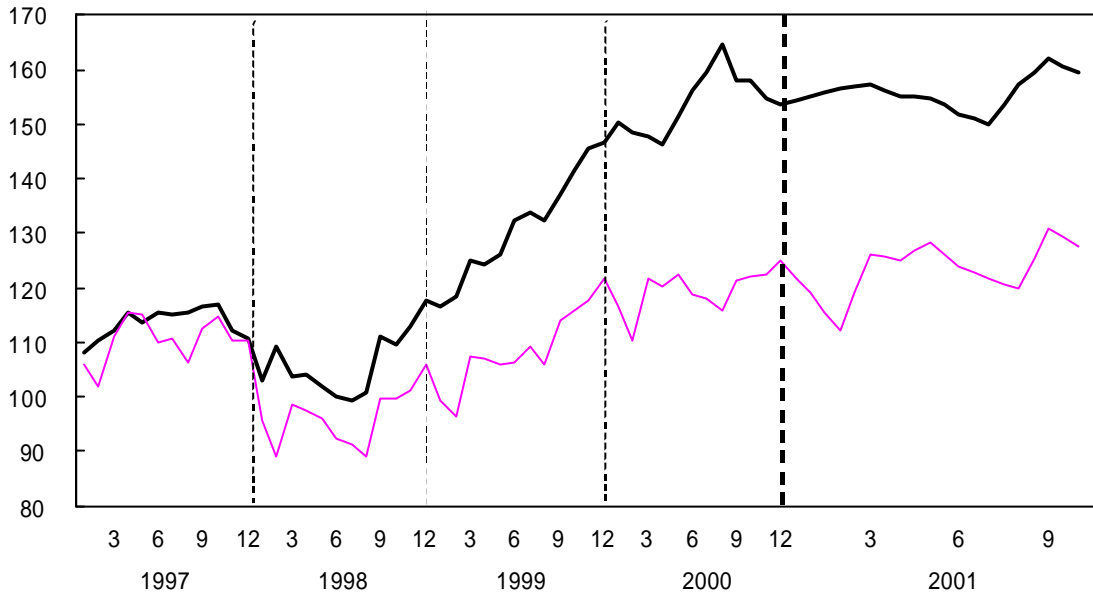
	200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행지수 <sup>1)</sup>	97.4	97.0	96.6	96.2	<b>96.4</b>	<b>96.7</b>
전월대비(%)	△2.8	△3.4	△4.7	△5.8	△5.1	△3.2
선행지수	132.6	133.2	133.6	134.1	<b>136.2</b>	<b>136.8</b>
전월대비(%)	△0.6	△0.1	△0.4	△1.0	<b>0.3</b>	<b>2.5</b>

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의미 (통계청)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개월 연속 상승세)**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한 96.7을 기록하여, 8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10월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6p 상승한 136.8을 기록하여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9월에 이어 다시 2.5% 증가하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 4. 산업생산 및 소비동향

<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지수 추이 >



<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 변동 >

	200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sup>1)</sup>	155.0	154.9	151.8	149.9	157.2	161.8	<b>159.3</b>
전년동월대비(%)	5.9	2.3	△2.8	△6.0	△4.8	2.5	<b>1.0</b>
도소매판매	125.0	128.3	124.1	121.6	120.1	130.8	<b>127.7</b>
전년동월대비(%)	4.0	4.8	4.5	2.9	3.6	7.8	<b>4.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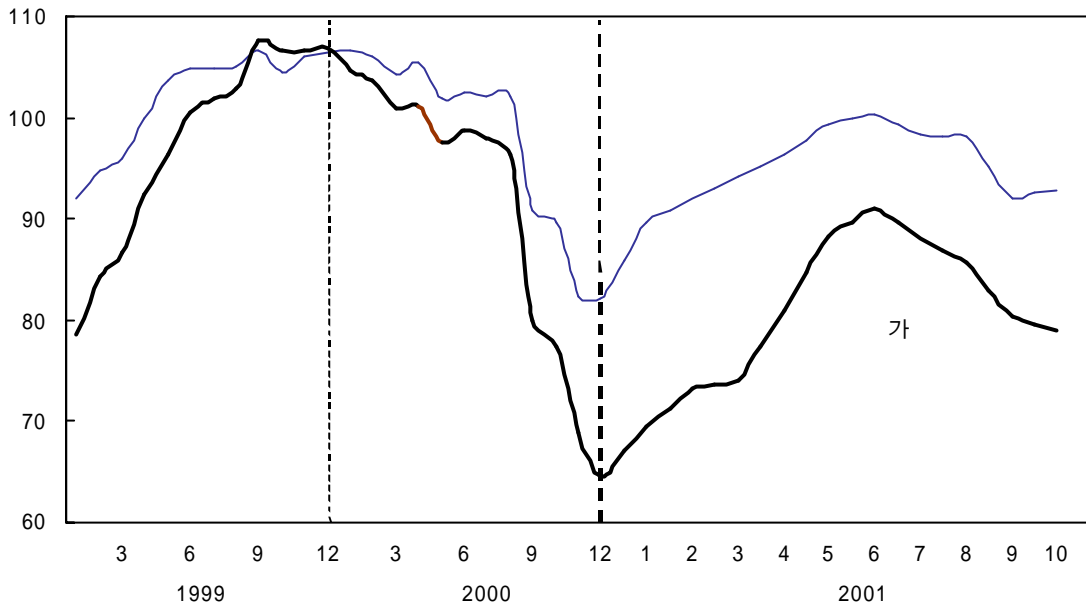
1) 계절조정치, 자료 : 통계청

- **(산업생산 추석연휴 영향으로 감소세로)** 10월 산업생산은 추석연휴 조업일수 단축으로 전월에 비해 2.5p 하락한 159.3을 기록, 전년동월 대비로는 1.0% 증가에 그쳤으나 추석요인을 빼면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도소매 판매도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10월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 판매를 비롯한 도소매업종 전반적인 판매호조로 127.7을 기록, 전년동월 대비로 4.6% 증가했으나, 추석연휴 영향으로 증가폭은 둔화.



## 5. 소비자 소비심리 변화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 소비자 전망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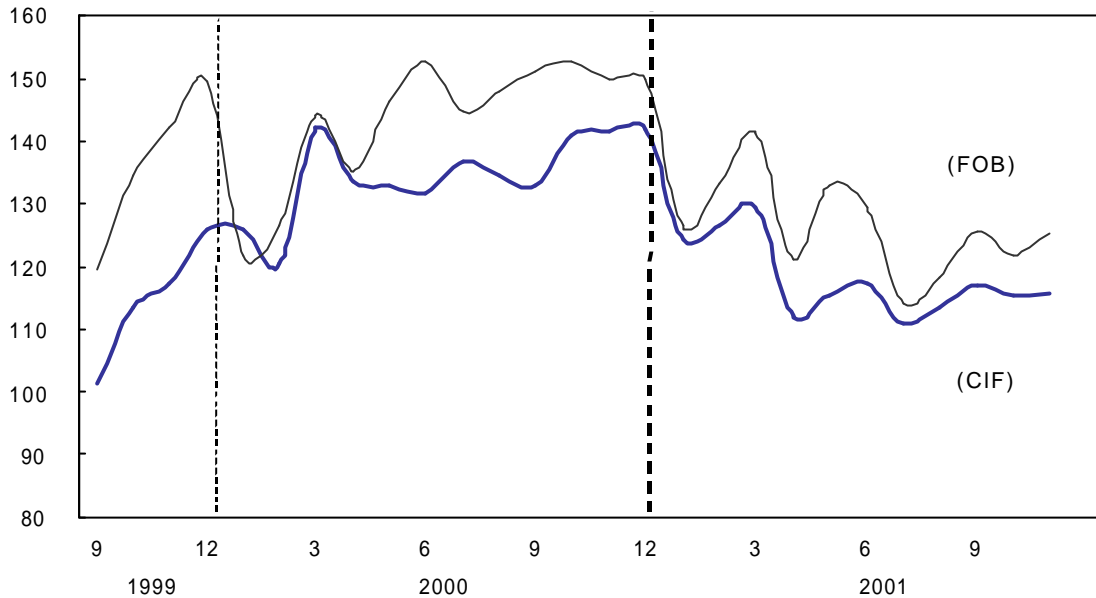
	200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가지수	80.9	88.3	91.1	88.2	85.6	<b>80.4</b>	<b>79.0</b>
전년동월비 (%)	△20.1	△9.5	△7.9	△10.0	△11.2	<b>0.5</b>	<b>1.9</b>
기대지수	96.3	99.5	100.3	98.4	98.2	<b>92.1</b>	<b>92.9</b>
전년동월비 (%)	△8.7	△2.4	△2.1	△3.8	△3.9	<b>1.3</b>	<b>3.5</b>

자료 : 통계청

- (소비자 평가지수 하락세 주춤) 6월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 평가지수는 10월 79.0을 기록하여 하락 폭이 둔화되고 있음. 전년동월 대비로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1.9% 상승.
- (소비자 기대지수 상승세로 반전) 10월중 소비자 기대지수는 9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8p 증가하여 상승세로 반전.

## 6.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동 추이 >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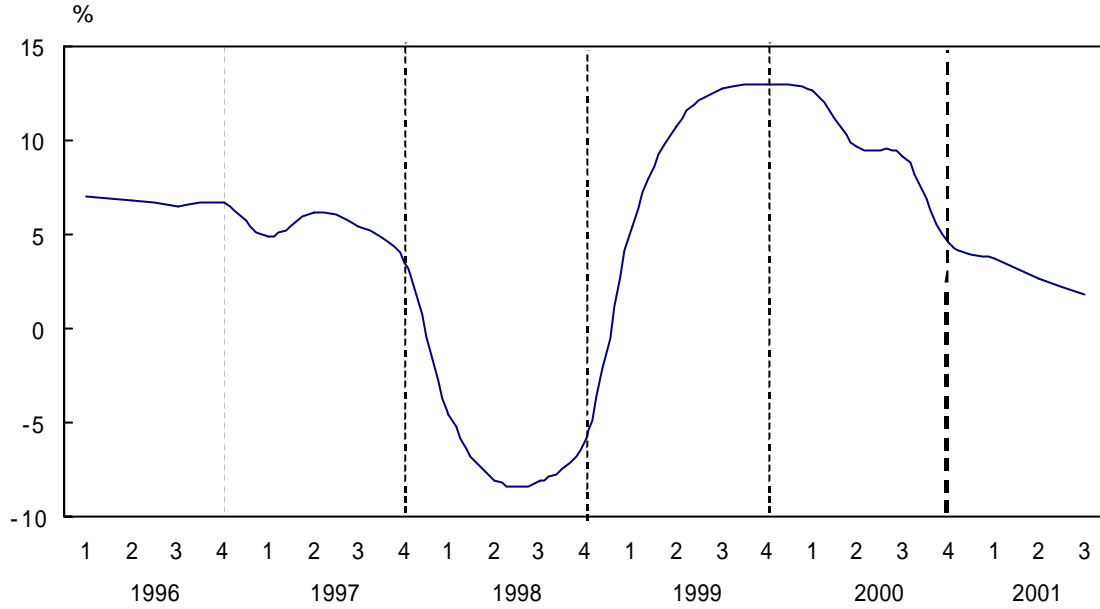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1~11월	10월	11월	1~11월	10월	11월
수출	1,572.9	152.5	149.9	1,388.5	121.8	125.4
수입	1,473.1	141.0	141.6	1,298.1	115.2	115.8
무역수지	99.9	11.4	8.3	90.4	6.6	9.7

자료 : 관세청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3% 감소) 11월 수출은 124.4억 달러로 전년전월대비 16.3% 감소하였으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10월: 20.1%감소)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 11월중 수입은 115.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하여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2자리수 감소세.
- (무역수지 9.7억 달러 흑자 기록) 11월중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로 지난 6월 이후(12.1억 달러) 가장 큰 폭의 흑자 기록.

## 7. 경제성장 동향

<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경제성장률 >

단위: % (1995년 불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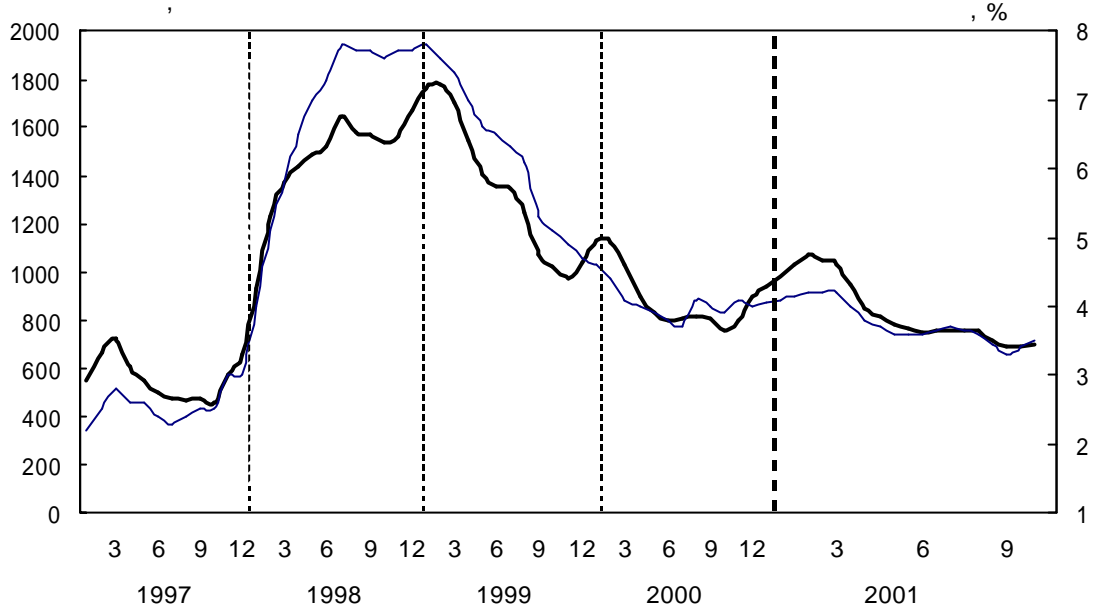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sup>p</su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G D P	△6.7	10.9	12.6	9.7	9.2	4.6	8.8	3.7	2.7	1.8
최종소비	△10.1	9.4	9.5	7.8	4.9	3.0	6.2	0.4	2.4	3.2
(민간)	△11.7	11.0	10.8	8.9	5.7	3.2	7.1	0.9	2.9	3.4
투 자	△21.2	3.7	21.9	13.2	10.5	1.6	11.0	△3.7	△4.7	△2.9
수 출	△14.2	15.8	27.1	21.4	22.5	16.4	21.6	8.4	1.0	△4.3

주: p는 잠정치 (한국은행)

- (3/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 3/4분기 실질 GDP는 설비투자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 이는 당초 예상(1% 전후) 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내년 중반이후 경기회복 기대.
- (내년 경제성장률은 4%대에 이를 듯)

## 8. 고용 변화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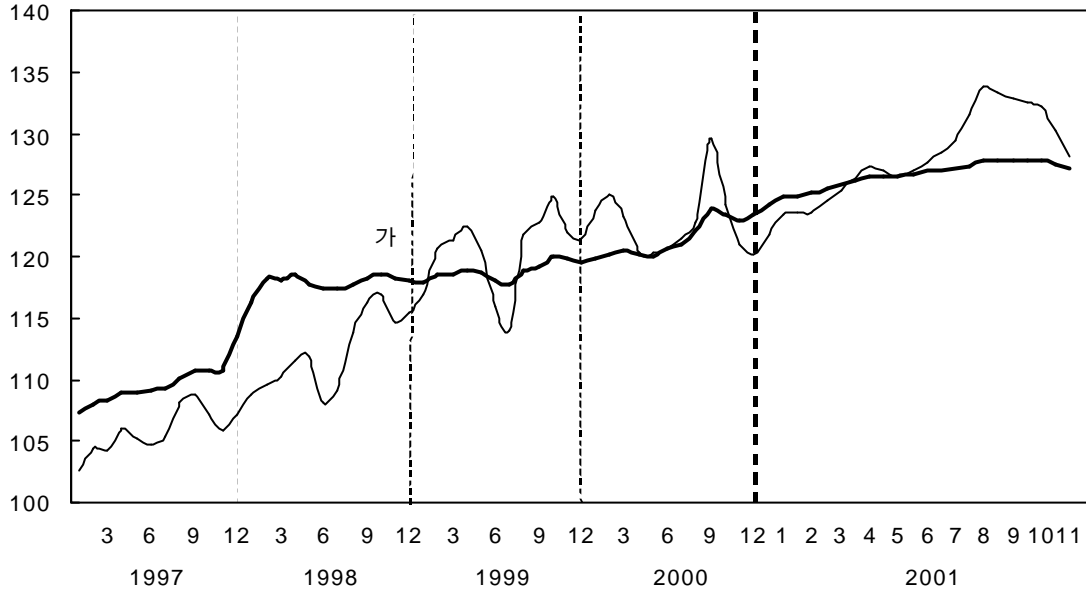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연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21,950	22,333	22,559	22,493	22,520	22,276	22,481	22,563
취업자	21,061	21,573	21,779	21,748	21,760	21,524	21,797	21,863
실업자	889	760	780	745	760	752	684	699
전년동기대비	△34.3	△25.6	△5.8	△6.1	△5.5	△8.1	△14.9	△8.0
실업률(계절조정)	4.1	3.8	3.6	3.6	3.7	3.6	3.3	3.5

자료 : 통계청

-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증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증가하여, 10월 취업자수는 전월보다 0.3% 증가한 2,186만 3천명, 실업자수는 전월보다 2.2% 증가한 69만 9천명을 기록
- **(10월중 실업률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10월중 실업률은 30대, 50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증대에 따라 전월대비 0.2%p 증가.

## 9. 물가 변동

<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



< 소비자 및 농축산물 물가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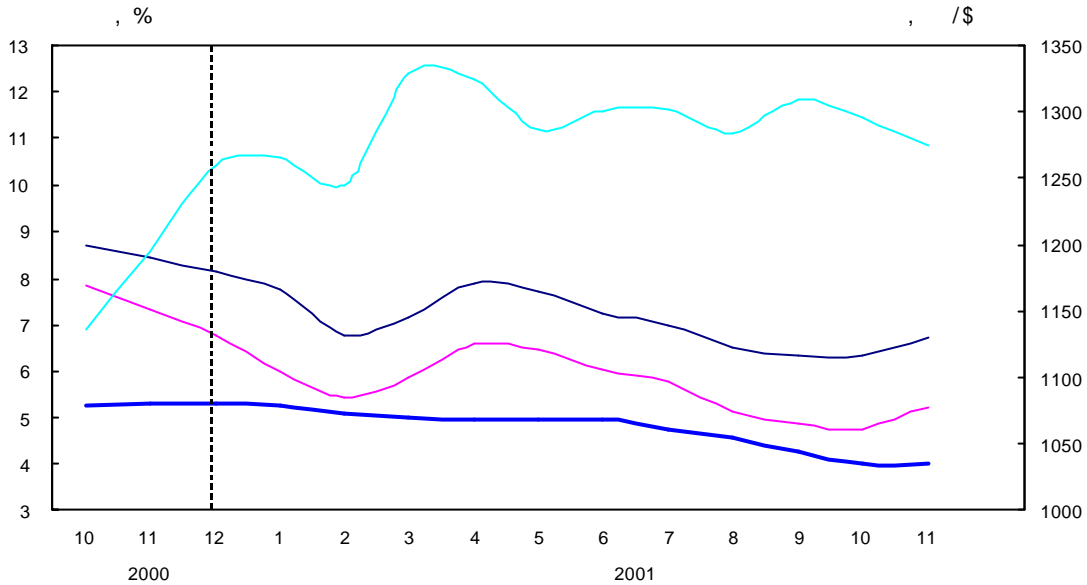
	200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26.5	126.9	127.1	127.7	127.7	127.8	127.1
전년동월대비(%)	5.4	5.2	5.0	4.7	3.2	3.6	3.4
농축수산물	126.5	127.6	129.4	133.7	132.8	132.2	128.2
전년동월대비(%)	5.2	5.8	6.6	8.9	2.5	6.4	6.0

자료 : 통계청

- **(소비자물가 하락세로 반전)**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4%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7p 하락한 127.1을 기록, 금년 들어 처음으로 소비자물가가 하락하였음.
- **(농축수산물 가격 3개월 연속 하락)** 11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4.0p 하락한 128.2를 기록,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밀감, 사과, 배, 무, 배추, 파 등의 농산물 출하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주 원인).

## 10. 금리 및 환율

< 월평균 금리변동 추이 >



< 월평균 금리 및 환율변동 추이 >

단위 : %, 원/\$

	200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콜금리	4.97	4.97	4.97	4.77	4.57	4.27	4.00	<b>3.99</b>
회사채 <sup>1)</sup>	7.91	7.70	7.24	7.00	6.51	6.32	6.31	<b>6.71</b>
국고채 <sup>1)</sup>	6.59	6.46	6.04	5.75	5.15	4.89	4.75	<b>5.23</b>
환율 <sup>2)</sup>	1,324.7	1,292.9	1,300.7	1,301.4	1,283.8	1,309.1	1,296.1	<b>1,274.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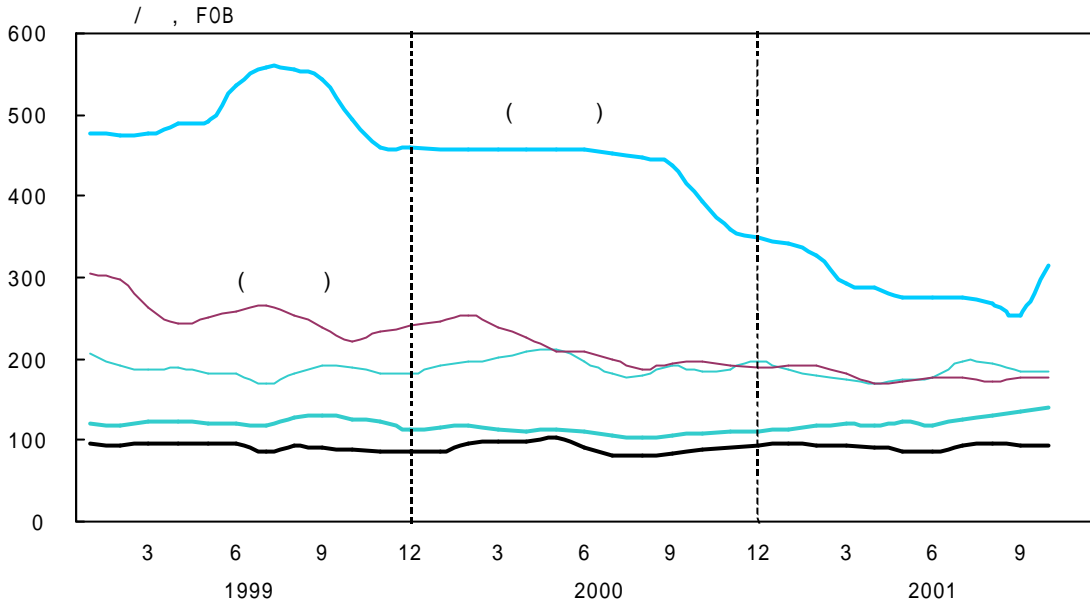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1) 3년물 기준, 회사채는 AA-기준, 2) 기말기준

- **(회사채, 국고채 유통 수익률 큰 폭 상승)** 11월 중 회사채, 국고채 유통 수익률은 콜금리 목표 동결 및 채권 수급불안 요인 등으로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큰 폭으로 상승.
- **(환율 하락세 지속)**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하락세로 반전, 11월 기말 기준환율은 달러당 1,274.0원.

## Ⅱ. 농업·농촌경제 변화 동향

# 1. 국제곡물 가격동향

< 국제곡물가격 추이 >



< 국제곡물 가격 >

단위 : \$/톤, FOB

	1999	2000	2001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쌀(중립종)	500.6	431.7	275.6	275.6	275.6	267.3	253.5	314.2
쌀(장립종)	255.6	211.7	171.5	176.5	176.5	173	178.0	178.0
콩	185.9	194.0	174.9	181.5	197.6	193.8	184.9	183.6
옥수수	92.1	91.1	87.1	85.7	93.4	94.8	94.2	93.6
밀	122.1	110.3	122.0	119.7	125.6	130.3	136.9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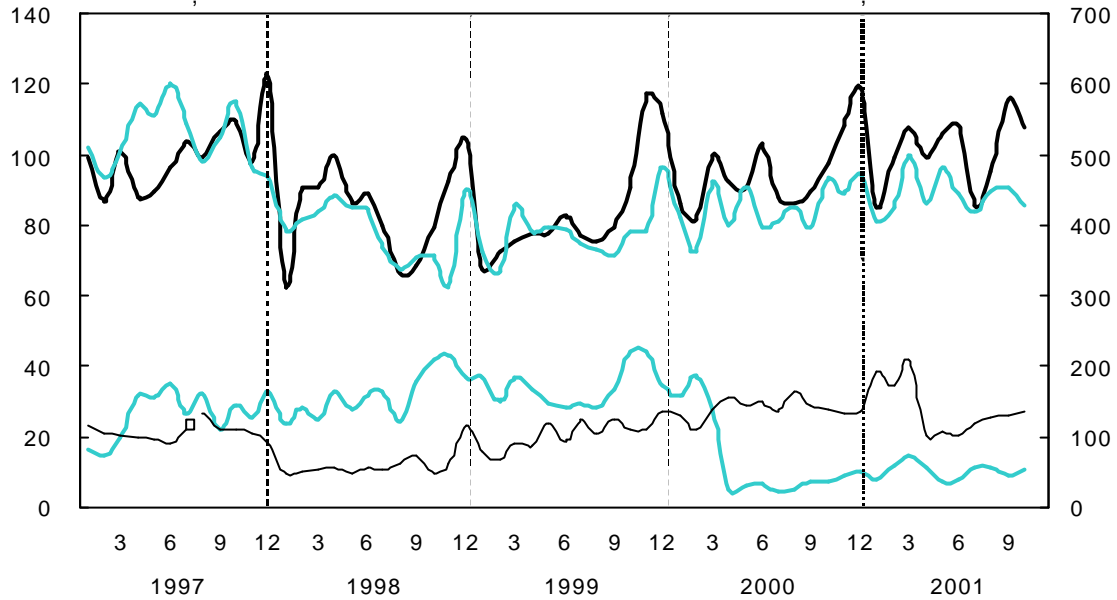
주: 중립종 쌀은 캘리포니아산 1등급이며 장립종 쌀은 태국산 1등급. 자료 : 농림부

-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 급등)** 10월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2001/2002 생산감소 전망에 따라 톤당 314.2달러로 전월대비 23.9% 상승, 장립종은 178.0달러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콩, 옥수수 국제가격 하락)** 10월 콩의 국제가격은 톤당 183.6달러를 기록 8월 이후 하락세 지속, 옥수수는 93.6달러로 2개월 연속 하락.
- **(밀 국제가격 상승세 유지)** 10월 밀의 국제가격은 톤당 140.0달러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기말재고량이 줄고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



< 농축산물 수출입 >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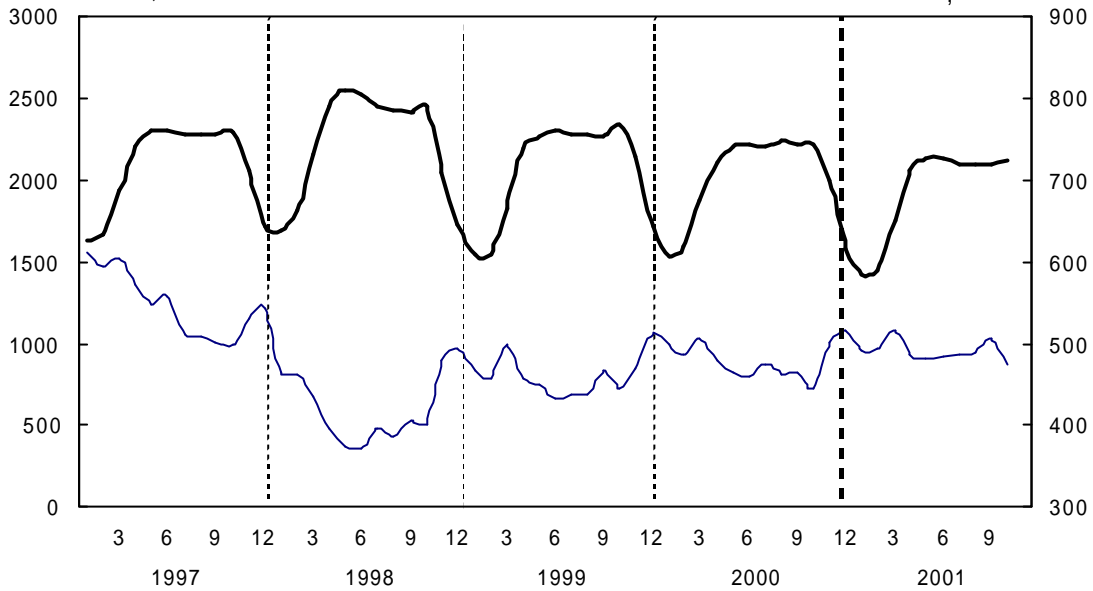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0, 10		2001, 10	
		1월 ~ 10월		1월 ~ 10월					
수출	농산물	909.7	1,002.0	10.2	97.7	108.0	10.4		
	축산물	124.9	98.2	△21.4	7.5	10.6	41.7		
	소계(A)	1,034.6	1,100.3	6.3	105.2	118.5	12.7		
수입	농산물	4,185.7	4,369.4	4.4	464.8	429.3	△7.6		
	축산물	1,408.7	1,166.2	△17.2	140.2	135.7	△3.2		
	소계(B)	5,594.4	5,535.6	△1.1	605.0	564.9	△6.6		
순수입	B-A	4,559.8	4,435.4	△2.7	499.8	446.4	△10.7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축산물 수출 전년동월 대비 12.7% 증가)** 10월 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4%, 축산물 수출은 41.7% 증가하여 농축수산물 수출은 전체적으로 12.7% 증가함. 10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1,108.3백만달러를 기록.
- **(농축산물 수입 전년동월 대비 6.6% 감소)** 10월 농산물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6%, 축산물 수입은 3.2% 감소하였음. 10월 누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5,535.6백만달러를 기록함.

### 3. 농림업취업자와 농외취업자

<농림업 취업자수 변동 추이>



< 농가의 취업자 변화 >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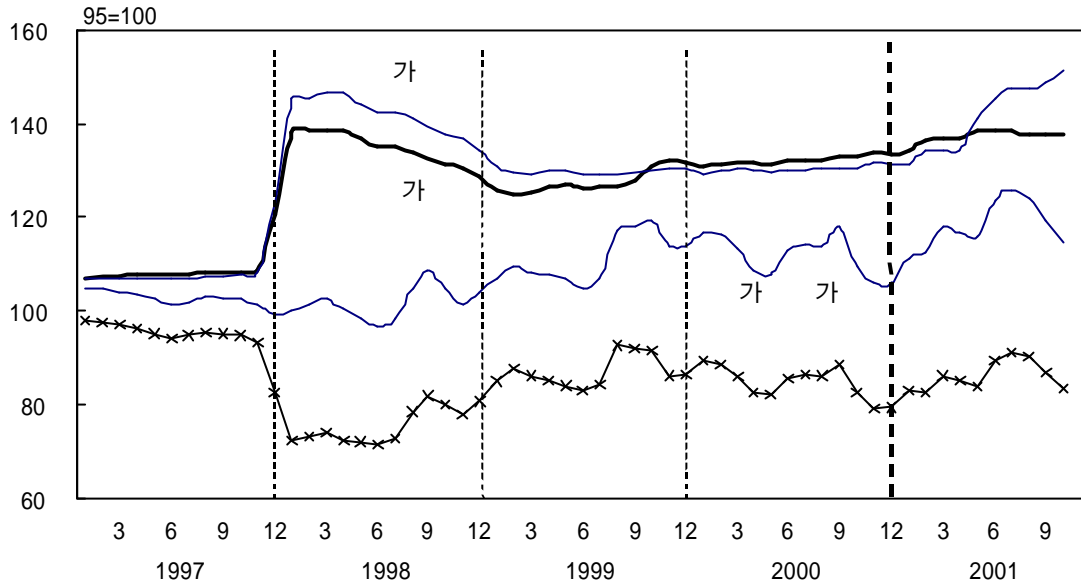
	2000				2001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농림업 취업자					2,107	2,096	<b>2,095</b>	<b>2,124</b>
전년동월대비	2,177	2,221	2,223	2,211	△32	△5.6	<b>△5.8</b>	<b>△3.9</b>
농외 취업자					483	494	<b>505</b>	<b>475</b>
전년동월대비	467	467	464	446	3.4	5.8	<b>8.8</b>	<b>6.5</b>

자료 : 통계청

- **(농림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10월 농림업 취업자는 전월대비 2만 9천 명이 증가한 212만 4천명 수준, 전년동월 대비 3.9% 감소.
- **(농외취업자 증가세 지속)** 10월중 농외 취업자는 전월에 비해 3만명이 감소한 47만 5천명 수준, 전년동월 대비로는 6.5% 증가하여 농외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 4. 농촌물가

< 농촌물가 추이 >



주: 투입재가격은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가격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치임.

< 농촌물가지수 변화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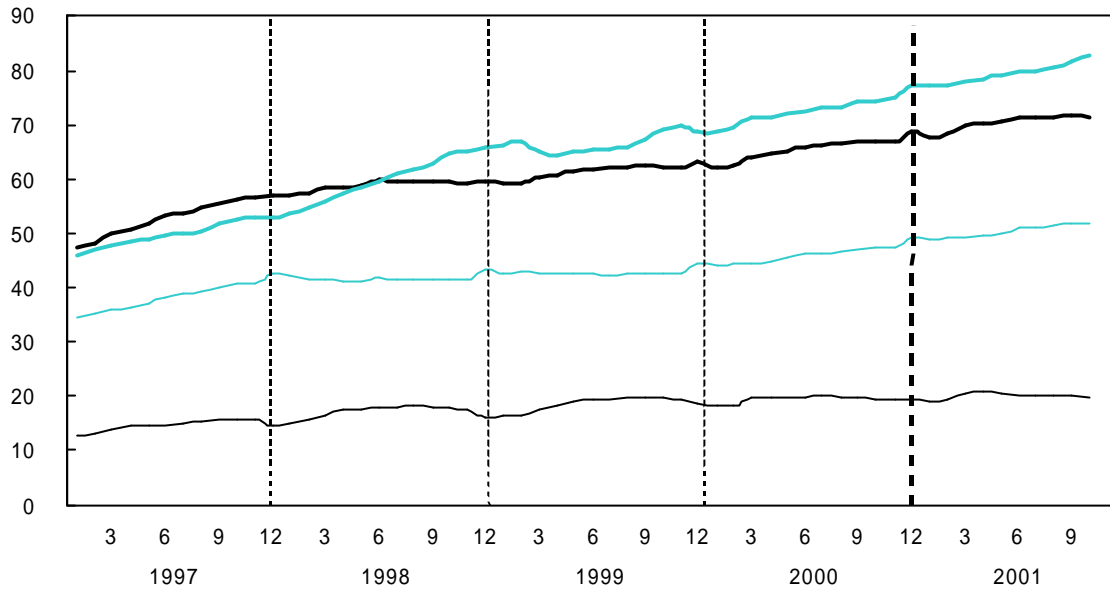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0,10	2001년			
					7월	8월	9월	10월
농가판매가격지수	101.9	108.5	109.6	109.6 (Δ8.1)	<b>125.9</b> (10.3)	123.9 (8.8)	<b>119.5</b> (1.4)	114.9 (4.8)
투입재가격지수	134.8	127.6	132.2	132.9 (Δ1.7)	138.4 (4.8)	137.5 (3.8)	137.8 (3.7)	137.3 (3.7)
판매가격/투입재	75.6	87.0	84.6	82.5 (Δ9.6)	<b>91.0</b> (5.3)	<b>90.1</b> (4.8)	<b>86.7</b> <b>(Δ2.2)</b>	83.4 (1.1)

주: ( )안 숫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농협)

- (농가판매가격 하락세 지속) 10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쌀 및 청과류의 가격하락으로 전월대비 4.6p 하락한 114.9를 기록.
- (농업경영조건 악화 지속) 10월 농업경영조건(판매가격/투입재가격)은 83.4를 기록하여 8월 이후 악화 추세 지속.

## 5. 농업금융

< 농업금융 잔고 >



< 농업금융 잔고 최근 동향 >

단위: 조원

		2000년 10월		2001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잔 고	전월차	잔 고	전월차	
대 출	상호금융	47.2	0.2	51.8	△0.1	9.6
	정책자금	19.7	△0.1	19.8	△0.2	0.6
	계	66.9	0.1	71.5	△0.3	7.0
예 금	상호금융	74.4	0.0	82.6	0.8	10.0

자료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농업금융 대출액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 농업자금 대출잔고는 전년동월 대비 상호금융이 9.6%, 정책자금이 0.6% 증가하여 총 대출액은 71조5천억원을 기록함.
- **(상호금융 예금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 속에 예대비율 하락)** 상호금융 예금잔고는 전월보다 8천억원 증가한 82조 6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 예대비율은 전월(63.4%) 보다 하락한 62.7%를 보여 전월보다 악화됨.

## 6. 주요 농산물의 소득

< 2001년 1월~10월중 주요 농산물의 소득 변화: 전년 동기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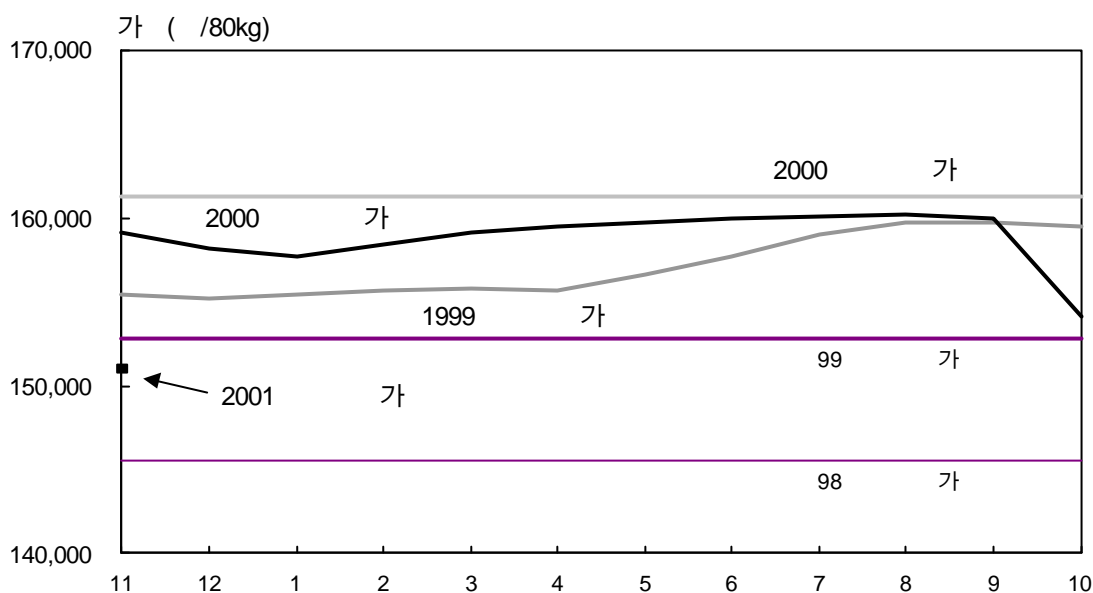
품 목	생산량	가격	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1~10월)	농업소득 (1~9월)
고랭지감자	△9.1	27.7	16.0	△0.1	31.2	31.6
노지고추	△6.9	15.6	7.6	△1.5	10.4	19.1
고랭지무	△3.7	6.9	2.9	4.0	2.4	37.2
고랭지배추	4.2	23.3	28.5	10.9	38.6	55.1
사과	△11.2	31.2	16.5	△6.8	35.6	28.3
노지포도	△1.2	△16.5	△17.5	△2.4	△25.2	△29.8
노지감귤	30.7	△42.7	△25.2	△5.6	△39.3	
시설감귤	△0.9	△9.5	△10.3	△0.9	△38.5	△18.9
단감	△7.7	△9.5	△16.6	△1.3	△28.8	
대파	△2.6	△8.4	△10.7	3.7	△18.9	△29.5
가을배추	△8.5	△48.6	△53.0	△12.2	△74.8	
배	14.2	△20.7	△9.4	14.1	△29.6	△51.1
가을무	△3.3	△66.2	△67.4	5.7	△105.2	

- **(고랭지감자, 고랭지배추, 사과의 소득 큰 폭 증가)** 금년 10월까지의 누계 농업소득은 고랭지감자, 고랭지배추, 사과가 각각 31.2%, 38.6%, 35.6%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노지감귤, 시설감귤, 가을배추, 가을무의 소득 큰 폭 하락)** 노지감귤, 시설감귤, 가을배추, 가을무는 10월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함.
- **(사과는 소득 증가폭 확대, 시설감귤은 소득 감소 폭 둔화)** 사과는 10월에도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추세가 이어져 사과의 소득 증가폭이 증가함. 시설감귤은 10월에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추가 하락하여 전월에 비해 소득 감소폭이 증가함.

## 7. 쌀 수급동향과 전망

### □ 쌀 가격동향

< 쌀 가격 추세(명목가격) >



< 쌀 가격 변동추세 >

단위: 원/80kg,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sup>1)</sup>
산지가격	159,183	159,495	159,781	159,891	160,156	160,236	160,055	155,224	<b>151,025</b>
전월대비	0.5	0.2	0.2	0.1	0.2	0.1	△0.1	△3.6	<b>△2.1</b>
전년대비	2.1	2.4	2.0	1.4	0.7	0.3	0.2	△3.3	<b>△5.1</b>

자료: 농림부, 주1) 11월 26일 가격

- 11월 쌀 산지가격은 151,025원/80kg으로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로도 5.1% 하락하였음.

### □ 쌀 소비량 동향

- 9월중 1인 1일당 쌀 소비량은 245.0g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하였으나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에 비해 3.6% 증가하였음.

< 1인 1일당 쌀 소비량 변동 >

단위 : g/1인/1일, %

월	2000 양곡년도				2001 양곡년도			
	12월	7월	8월	9월	12월	7월	8월	9월
전체	260.3	247.4	243.1	254.4	245.7	238.8	236.6	245.0
농가	382.8	371.0	371.9	389.8	378.5	368.4	366.7	385.2
비농가	248.2	235.7	230.8	241.6	233.3	227.1	224.9	232.5
전년 동월 대비(전체)	△2.3	△4.3	△5.2	△5.0	△5.6	△3.5	△2.7	△3.7

자료 : 통계청

□ 2002 양곡년도 쌀 수급전망

- 2002 양곡연도 쌀 총공급량은 약 709만톤 예상
  - 전년이월 : 142.4만톤, 생산 : 551.5만톤, MMA물량 : 15.3만톤
- 2002 양곡년도의 총소비량은 대복지원 여부에 따라 500~540만톤 전망
  - 식 용 : 420만톤 (2001 양곡연도 명목시장가격 수준 유지를 가정)
  - 가공용 : 35만톤 (주정용 15만톤, 가공용 소비 3만톤 증가 가정)
  - 대복지원 : 30만톤 (잠정치)
  - 종자 및 감모 등 : 50만톤 (2000년, 2001년 수준 유지)
- 쌀 재고량 추이 : 2001년: 142만톤 (28.6%) ⇒ 2002년: 174~204만톤 (34.5~40.4%)

< 쌀 수급전망 >

단위: 천톤

양 곡 년 도	2000	2001	2002
공 급	<b>6,092</b>	<b>6,397</b>	<b>7,092</b>
이 월	722	978	1,424
생 산	5,263	5,291	5,515
MMA	107	128	153
소 비	<b>5,114</b>	<b>4,973</b>	<b>5,350</b>
식 용	4,444	4,300	4,200
가공용	173	173	350
대복지원	0	0	(300)
종자·감모 등	497	500	500
연말재고량	978	<b>1,424</b>	<b>2,042(1,742)</b>
연말재고율(%)	19.1	28.6	<b>40.4(34.5)</b>
자급률(%)	102.9	106.4	109.2

( )내 수치는 대복지원을 고려한 경우임.

### Ⅲ. 품목별 수급 동향



## 1. 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 가. 개황

- 11월 기상이 좋아 생산량이 적은 고추와 재고량이 적은 마늘 이외의 채소류 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평년 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음.
- 12월 이후 겨울철의 채소류 출하예상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 수준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전망됨.

<채소 도매가격 증감률 동향(상품 기준)<sup>1)</sup>>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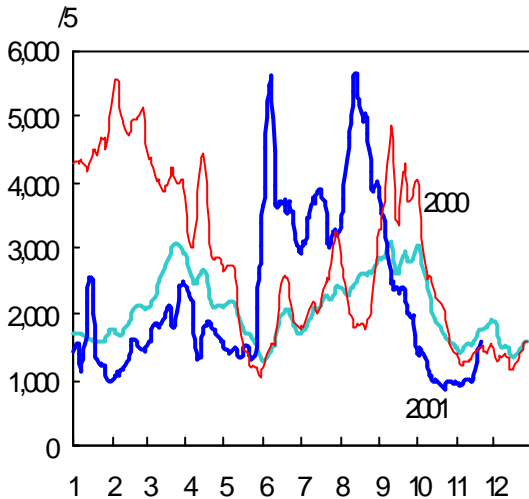
	1~10월 가격		11월 가격		
	작년 동기 대비	평년 동기 대비 <sup>2)</sup>	전월 대비	작년 동기 대비	평년 동기 대비 <sup>2)</sup>
배추	$\Delta 25$	8	$\Delta 8$	$\Delta 20$	$\Delta 31$
무	$\Delta 20$	10	$\Delta 16$	$\Delta 49$	$\Delta 41$
고추	13	26	$\Delta 5$	$\Delta 2$	21
마늘	4	$\Delta 19$	1	13	1
양파	$\Delta 16$	$\Delta 23$	$\Delta 2$	$\Delta 38$	$\Delta 38$
대파	$\Delta 8$	7	$\Delta 20$	$\Delta 13$	$\Delta 14$
쪽파	10	$\Delta 20$	33	16	$\Delta 38$
양배추	$\Delta 33$	$\Delta 16$	$\Delta 37$	$\Delta 59$	$\Delta 61$
당근	19	21	$\Delta 22$	$\Delta 41$	$\Delta 39$

주: 1) 가락동시장 도매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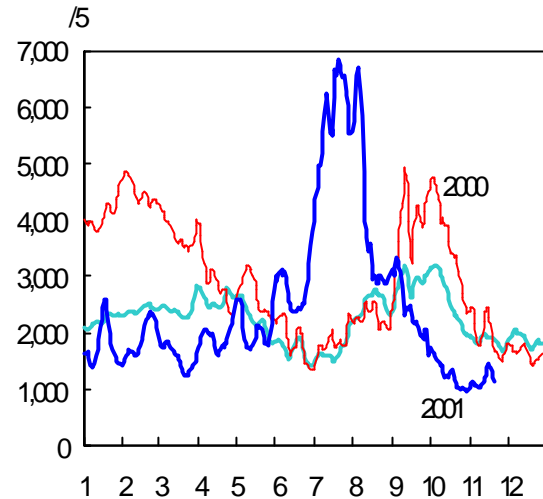
2)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 나. 무·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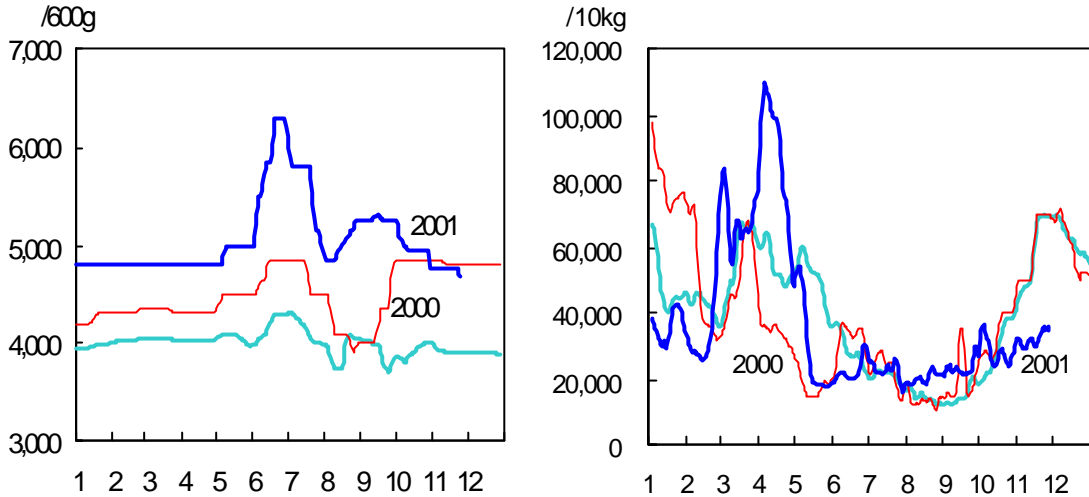
주 :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11월에는 무·배추의 준고랭지 2기작 무·배추와 이른 가을무·배추 출하가 많아 가격이 낮았으나, 산지 폐기와 김장이 시작되면서 11월 중순 이후 가격은 다소 상승함.
- 김장무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하고, 김장배추는 14% 감소하였음. 무의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6%, 배추는 8% 높을 것으로 조사되어, 무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하고 배추는 6% 적을 전망. 소비자 조사결과 김장수요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12월 무·배추의 가격은 작년보다 낮거나 비슷할 전망.
- 월동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30% 이상 많고 저장무·월동무 출하량도 작년보다 20%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내년 초 무·배추 가격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7% 감소하고, 봄배추는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다. 고추

<건고추 도매가격 동향(화건, 상품)>

<홍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년~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한 70,736ha, 10a당 수량은 작년보다 2% 감소한 255kg, 생산량은 작년보다 7% 적은 18만 120톤임.
- 11월 15일 현재, 고추 생산농가들은 생산량의 78%를 판매하였고, 2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14% 적은 14만 1천톤, 농가 보유량은 작년에 비해 34% 많은 3만 9천톤으로 추정됨.
- 금년산 국내 고추 생산량이 적고, 중국 익도산 고추 생산량도 작년보다 40% 줄어들어 내년 수확기 이전까지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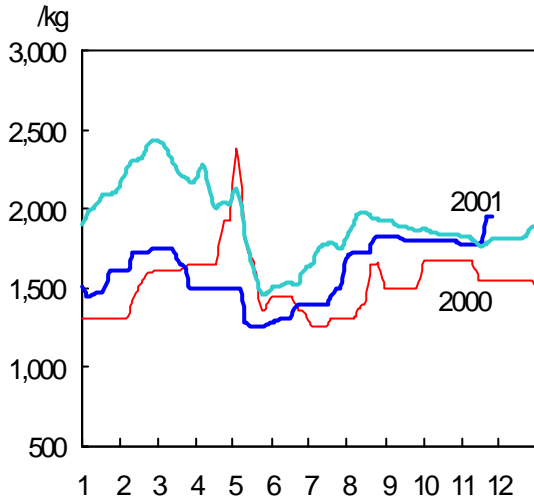
<고추 농가 보유량>

단위 :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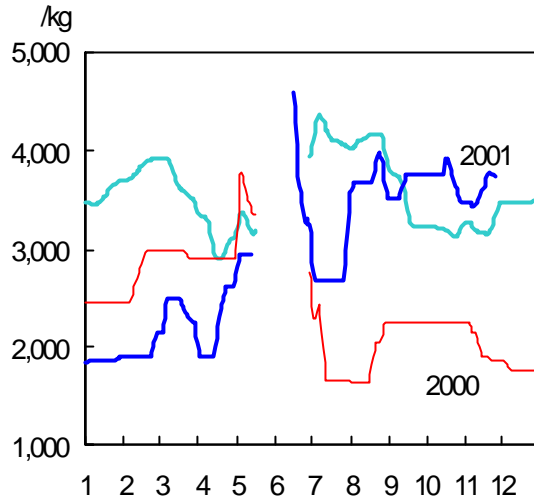
년산	생산량	판매량(11. 15 현재)	보유량(11. 15현재)
2000	193,800(100.0)	164,800(85.0)	29,000(15.0)
2001	180,120(100.0)	141,260(78.4)	38,860(21.6)
증감률(%)	△7.1	△14.3	34.0

라. 마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년 5월~2001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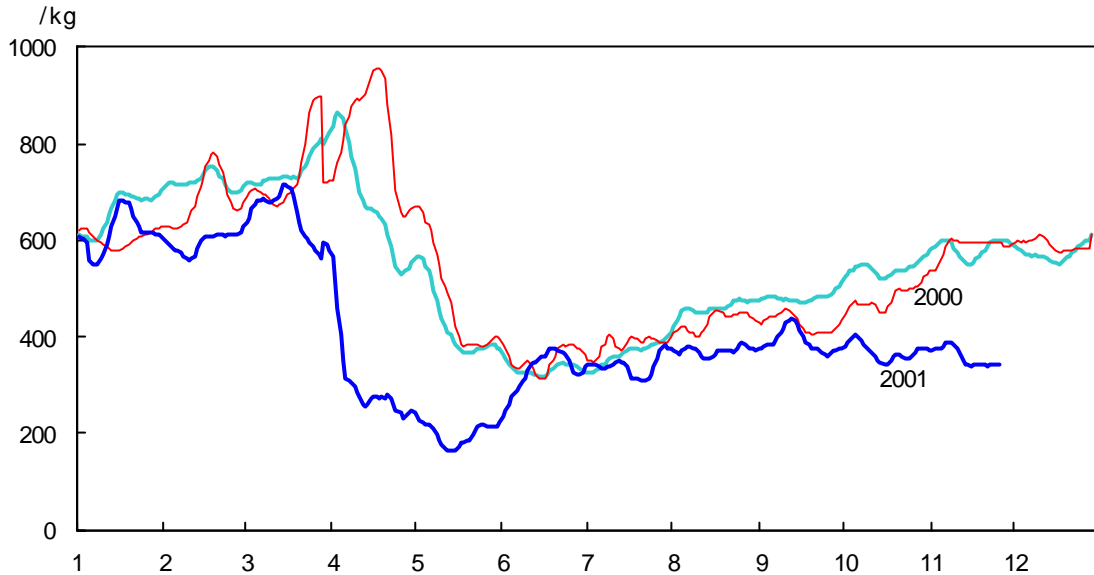
- 금년산 마늘의 저온저장량은 작년보다 약 12% 적은 9만 4천톤으로, 11월 15일 현재 재고량은 작년보다 14% 적은 6만 7천톤인 것으로 추정됨.
- 정부가 비축물량과 MMA 물량을 전량 시장에 방출할 경우,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저장마늘 출하기 시장공급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난지형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6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감소한 3만 4,700ha 내외가 파종된 것으로 조사됨.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예상생산량은 37만 4천톤이며, 총공급량은 40만 9천톤으로 금년산 총공급량 45만 5천톤보다 약 10% 적을 것으로 추정됨.

<12-4월 정부방출량별 마늘가격전망>

방출량(톤)	12-4월 평균도매가격 (원/난지형 상품 kg)
0	2,400~2,500
5,000	2,200~2,300
10,000	2,000~2,100
15,000	1,800~1,900
20,000	1,650~1,750

## 마.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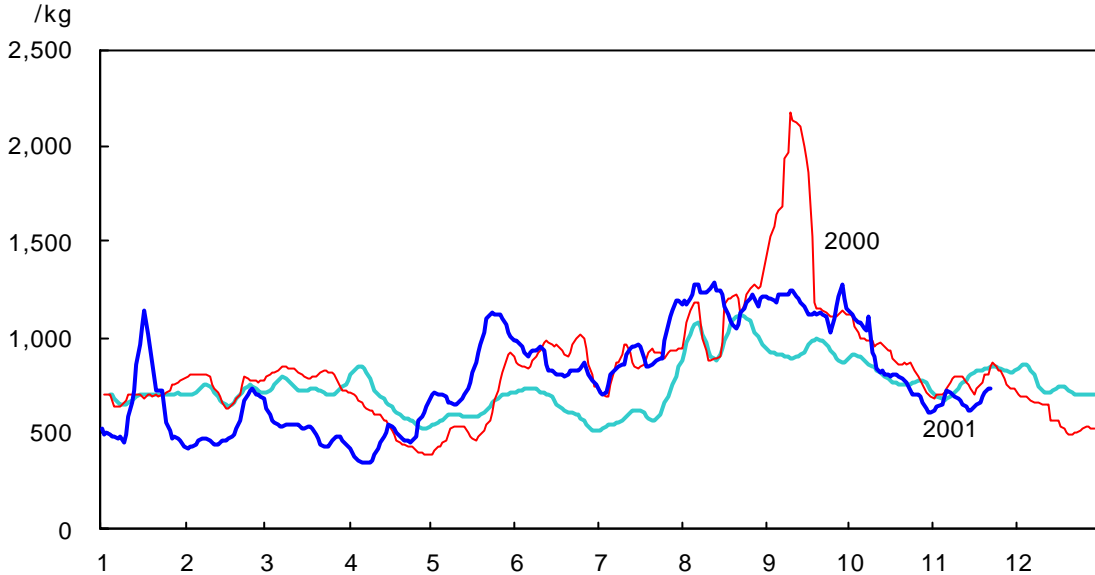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년 4월~2001년 3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금년산 생산량이 많고 저온저장분의 출하량이 많아 11월 양파의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평년과 작년 동기보다 38%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산 저온저장량은 작년보다 약 15% 많은 45만톤으로, 11월 15일 현재 재고량은 작년보다 26% 많은 29만 9천톤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12월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약 34% 낮은 350~45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저온저장량도 많아 내년 조생종 수확기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산 양파의 저온저장량과 내년산 조생종 양파의 영향으로 내년 중만생종 수확기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금년 동기가격보다 낮을 전망.

바.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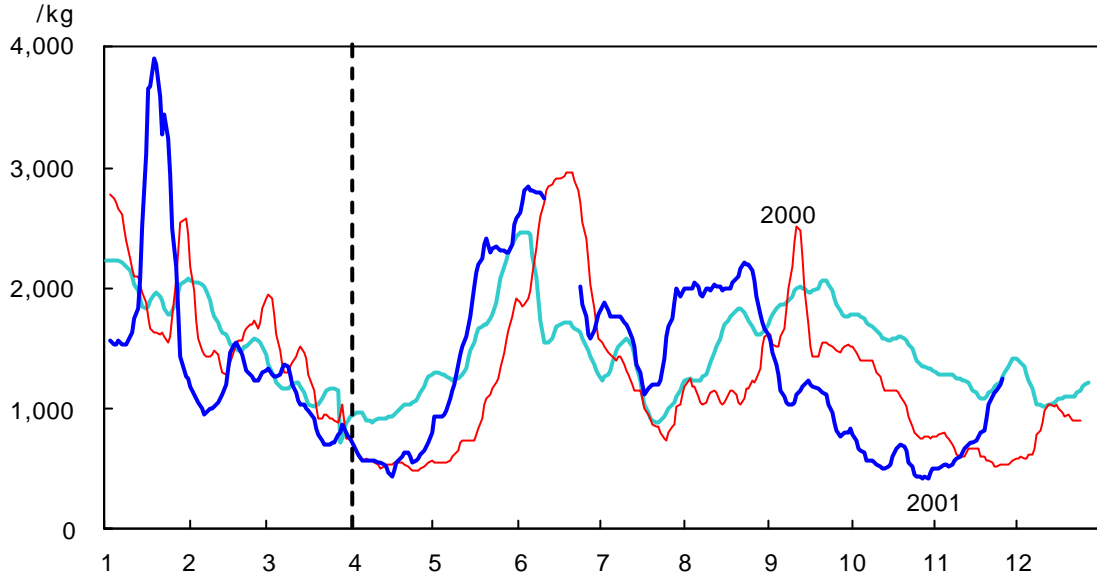
- 대파의 김장철 출하량이 작년보다 10% 많아 11월 하순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670원으로 작년이나 평년 동기보다 13% 낮은 수준.
- 남부지방의 겨울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6% 적으나 작황이 매우 좋아 12월 이후 내년 4월까지의 도매가격은 작년 가격(상품 450~660원/kg)보다 낮을 전망.
- 김장철 가격이 낮아 중부지방의 월동 의향이 늘어나고, 겨울철 정식의회향 면적도 작년 동기보다 6% 증가.

<대파 출하예상량의 작년 대비 증감률>

출하시기	지역						전체
	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겨울	-	-	-	1.2	-	28.5	8.2
월동	4.3	4.2	8.6	-	1.3	-	7.3

## 사. 쪽파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1~3월은 깐파 가격이며, 4~12월은 후파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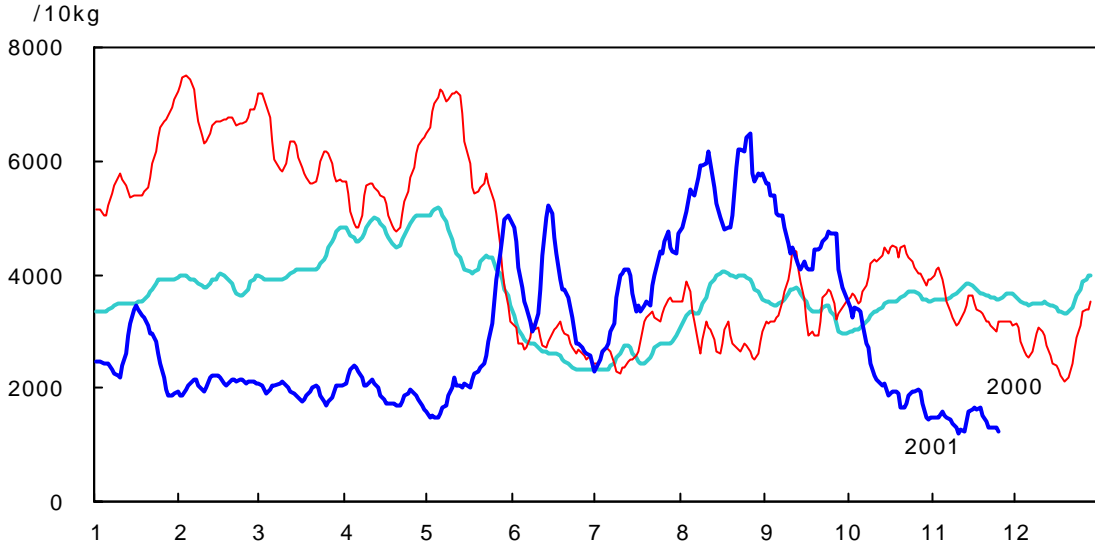
- 쪽파 김장철 출하량이 작년보다 2% 적은데다 상품성도 낮아, 11월 하순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08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배 높고, 평년 동기보다는 6% 낮은 수준.
- 겨울철의 충남, 제주지방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2% 적어 12월 이후 내년 4월까지의 가격은 작년보다 약간 높을 전망.

<겨울철 쪽파 출하예상량의 작년 대비 증감률>

출하시기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단위 : % 전체
겨울	△2.9	△1.2	△3.2	△0.6	△1.8

## 아. 양 배 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양배추 작황이 매우 좋아 11월 상품 평균도매가격은 1,430원/10kg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60% 낮은 수준. 12월 이후 겨울 출하예상량이 작년 동기보다 30%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은 계속 낮을 전망.
- 일본의 양배추 작황도 좋아 11월 도매가격은 54엔/kg으로 평년 동기보다 38%, 작년 동기보다 29% 낮은 수준이어서 겨울철 대일 수출량은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겨울양배추의 생산량이 많아 출하가 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겨울철의 정식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겨울철 양배추 정식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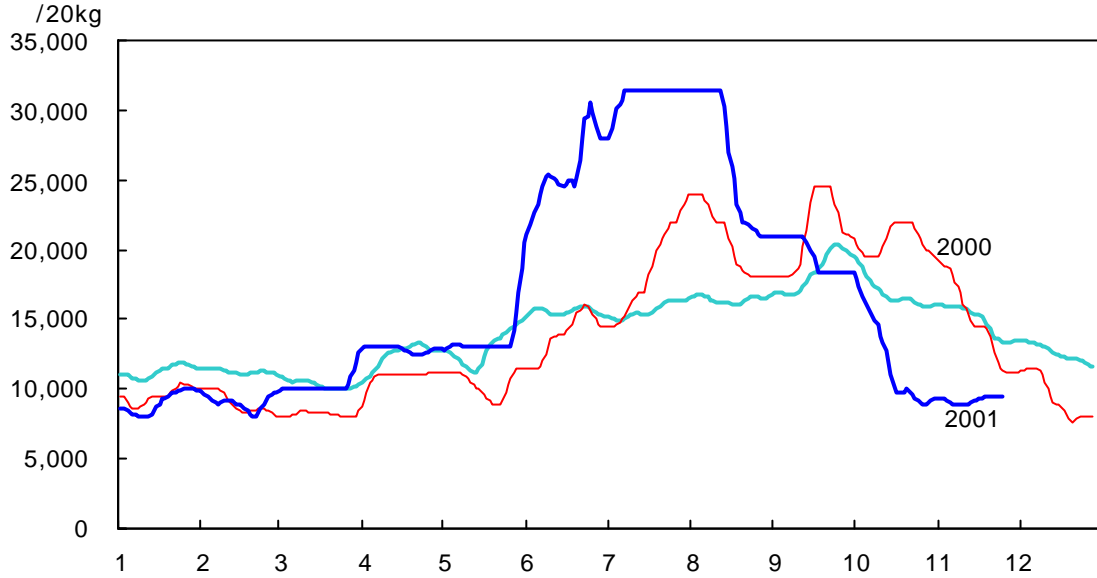
단위 : %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전체
△3.7	△6.3	△6.9	△10	△3.5



## 자. 당 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고랭지당근과 수입당근의 물량이 많아 11월 상품 평균도매가격은 9,280원 /20kg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40% 낮은 수준. 12월 이후 겨울 출하예수량이 작년 동기보다 7%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은 계속 낮을 전망.
- 금년 봄당근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겨울철의 파종의향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겨울철 당근 파종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충청	영남	전 체
0.1	15	11

## 2.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 가.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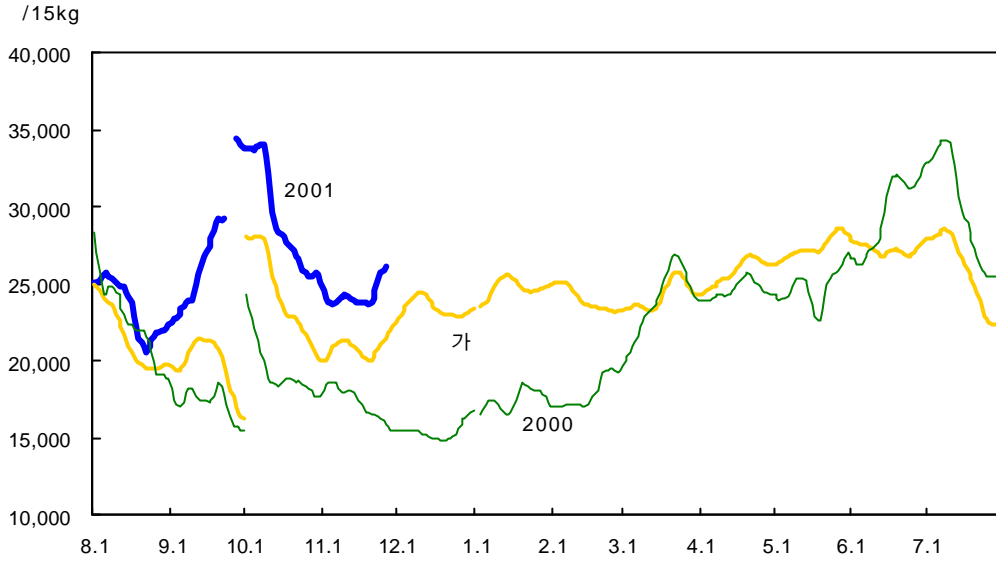
- 10월 하순까지의 하락세였던 과일 가격이 11월 상순부터 반등하여 감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 동기보다 높은 수준임. 11월 공급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적고 소비심리가 지난달보다 호전되었기 때문.
- 12월에도 과일 공급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소비심리도 11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과일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내년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배, 사과, 단감 면적은 2~4%씩 줄고 감귤과 포도 면적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나타남. 신품종으로의 갱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 톤)

	10월 가격		11월 가격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사과	<b>44</b>	18	<b>37</b>	17
배	<b>△19</b>	<b>△30</b>	14	<b>△26</b>
감귤	<b>△20</b>	<b>△26</b>	<b>△29</b>	<b>△34</b>
단감	△13	<b>△22</b>	19	△17
포도	△12	<b>△31</b>	<b>96</b>	19
오렌지	<b>53</b>	<b>21</b>	15	-

## 나. 사과

### < 가격동향 >



주 : 8~9월은 쓰가루, 10~익년 7월은 후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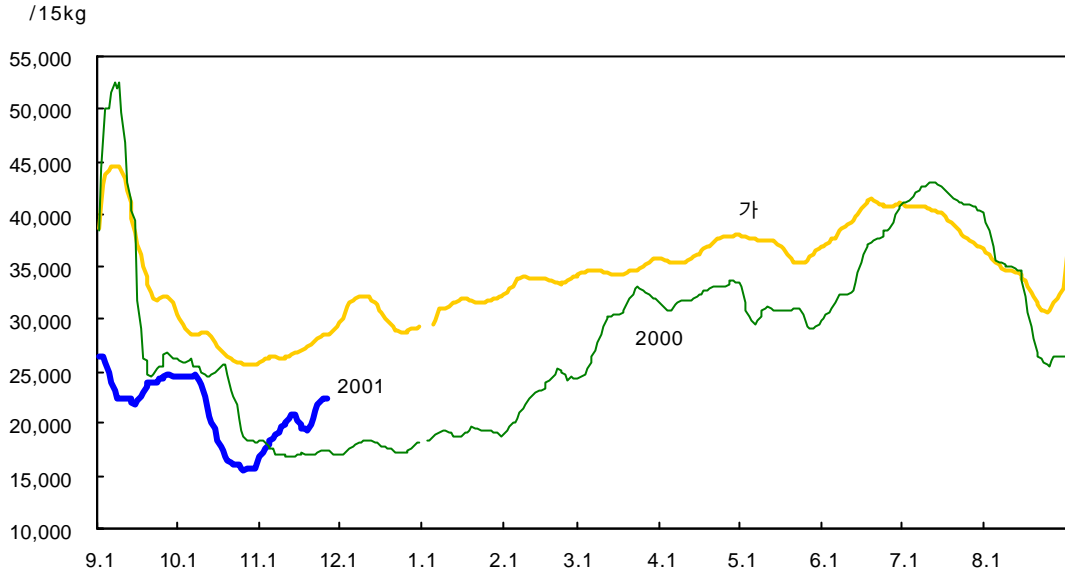
- 후지의 11월 가격은 상품 15kg당 2만 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7%, 평년보다는 17% 정도 높은 수준임.
- 12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7%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산 사과의 품질 및 저장성이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12월 가격은 보합세를 보여 평년과 비슷한 수준(상품 15kg당 2만 4천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 내년 사과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3% 줄어드는 2만 5,630ha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품종별로는 후지가 5%, 쓰가루가 7% 정도 줄어드는 반면, 홍로는 7%, 양광 및 기타 품종은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 사과 공급량 추정 >

		생 산 량 (A)	8~11월 출하량(B)	수출량 (C)	12월이후 출하량 (A-B-C)
공급량 (천톤)	'00년산	489	239	43	246
	'01년산	433	202	30	228
'01/00 감소율(%)		△115	△155	△302	△71

다. 배

< 가격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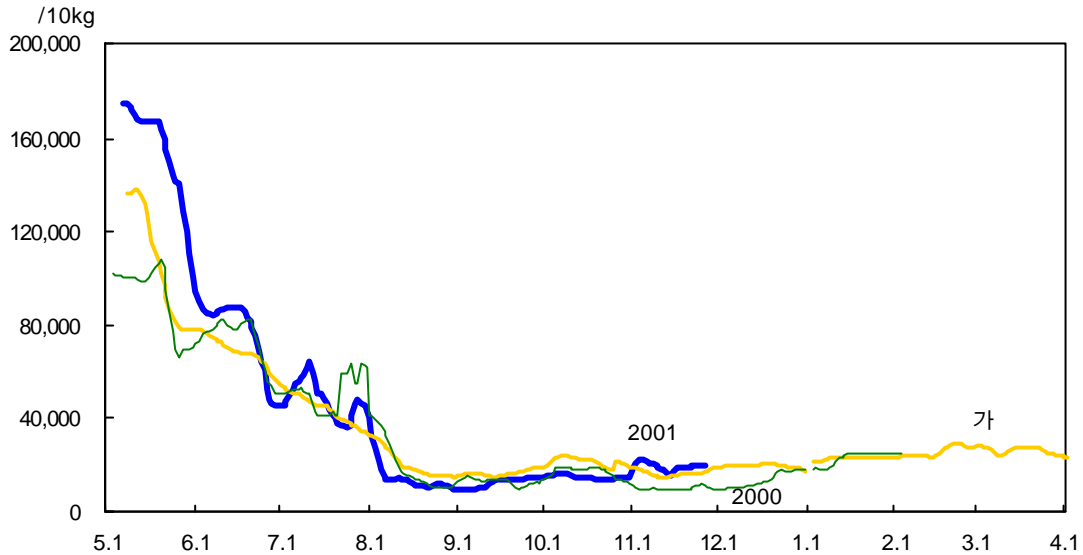
- 신고 가격은 11월 상순 상품 15kg당 2만원으로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14% 정도 높은 수준.
- 12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3% 정도 많을 전망. 12월에는 감귤의 공급압력이 완화되고, 정부 수매로 배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 가격은 지난해 수준(상품 15kg당 1만 8천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내년 배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2% 정도 감소한 2만 4,960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신고가 2%, 장십량이 7% 정도 줄어드는데 비해, 황금배와 원황은 2% 정도 늘 것으로 나타남.

< 배 공급량 추정 >

		생 산 량 (A)	9~11월 출하량(B)	수출량 (C)	12월 이후 출하량 (A-B-C)
공급량 (천톤)	'00년산	324	144	96	171
	'01년산	370	180	136	176
'01/'00 증가율(%)		14.2	25.2	41.4	3.4

## 다. 포도

### < 가격동향 >



주 : 상품 10kg 기준으로 8월 1일~10월은 캠벨얼리 11~익년 4월은 세단임.

- 11월 캠벨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정도 높고, 세단 가격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크게 높은 것은, 공급량이 크게 줄었고 당도, 색깔 등 품질이 좋기 때문.
- 세단은 올해 생산량이 적어 12월 이후 출하될 저장량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지난 1~2월 가격이 높아 내년 1월 이후 공급량은 올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전망.
- 내년 재배면적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노지면적은 약간 줄고 하우스 면적은 13% 정도 늘 전망. 품종별로는 MBA는 7%, 델라웨어는 4% 정도 증가하고, 캠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세단은 11% 정도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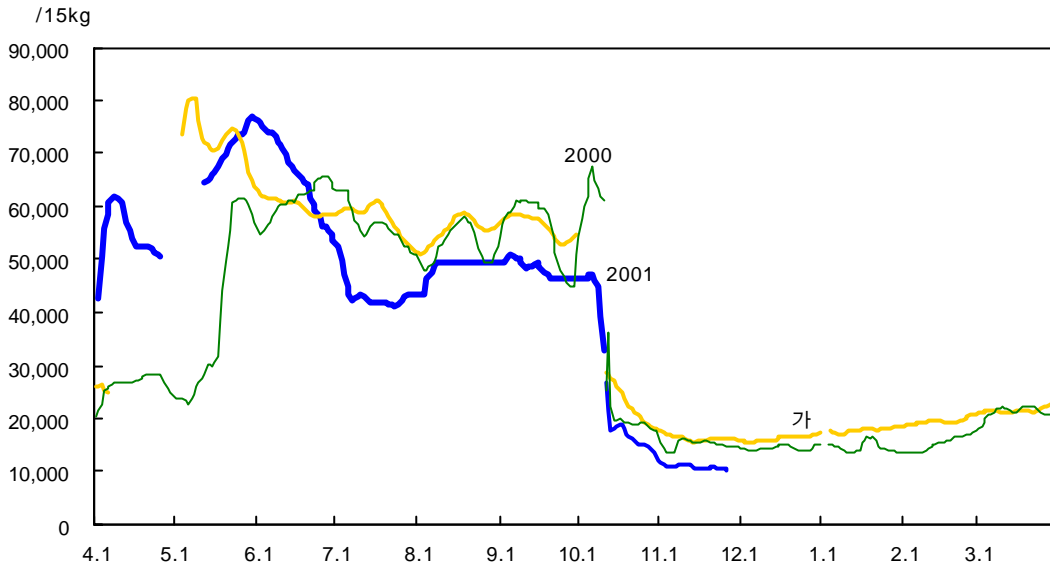
### <포도 품종별 재배의향연적>

(단위 : ha, %)

	캠벨	거봉	세단	MBA	델라웨어	기타	전체
'01년	18,145	4,047	2,037	1,823	54	697	26,803
'02년	18,137	4,078	1,808	1,943	56	768	26,790
증감률	0.0	0.8	△112	6.6	36	10.2	△0.1

## 마. 감귤

### < 가격동향 >



주 :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월동재배 및 하우스감귤 5kg를 15kg로 환산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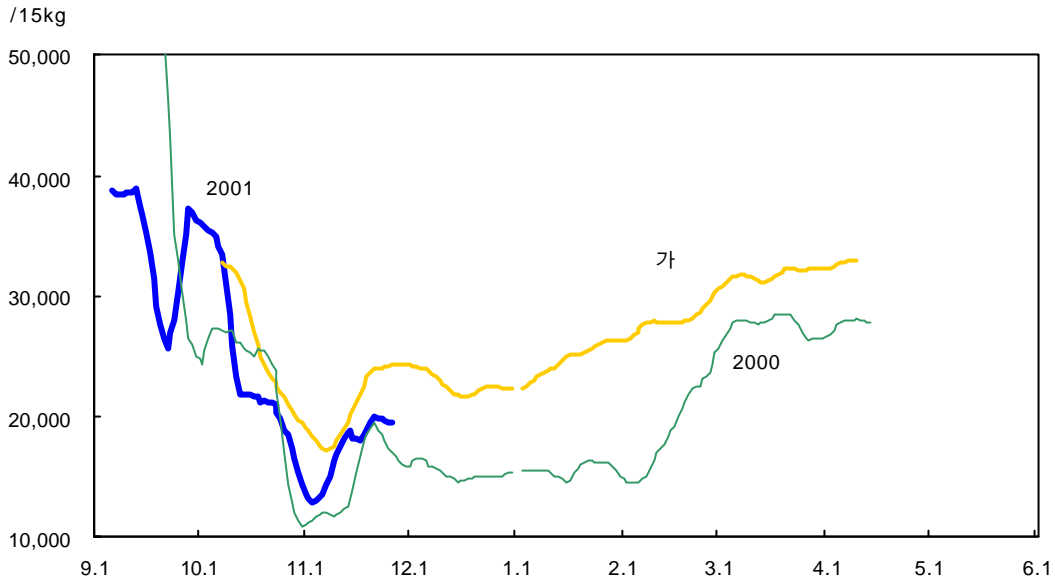
- 11월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1만 8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 정도 낮고, 평년동기보다 34%정도 낮은 수준.
-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6%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됨. 이중 11월까지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8%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12월 이후 출하량은 가공량이 크게 늘어 지난해 보다 2%정도 많은 수준에 그칠 전망.
- 올 겨울 한라봉 생산량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 월동 온주밀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정도 늘 것으로 추정되며, 극조기 가온면적이 늘어 내년 봄 감귤 공급량은 올봄보다 크게 늘어날 듯.

### < 노지감귤 공급량 추정 >

		생산량	11월까지 출하량	가공량	수출량	12월이후 출하량
공급량 (천톤)	'00년산	536	123	27	5.7	380
	'01년산	624	169	60	6.5	388
'01/00 증감률(%)		16.4	38.0	122.2	14.0	2.0

## 바. 단감

### < 가격동향 >



주 : 9월은 서춘조생등 기타품종가격, 10월 이후는 부유가격임.

- 11월 도매가격은 부유 상품 15kg당 1만 7,1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정도 높고, 평년 동기보다는 17%정도 낮은 수준임.
- 단감 공급량은 11월까지 지난해보다 8%정도 적었고, 12월 이후 공급량은 9%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됨. 공급부족으로 12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내년 단감재배면적은 올해보다 4% 감소한 2만 1,900ha 수준이 될 전망. 품종별로는 차랑이 12%, 부유가 3%, 서춘조생이 4% 정도 줄 것으로 추정됨.

### < 단감 공급량 추정 >

		생산량	11월까지 공급량	수출량	12월이후 공급량
공급량 (천톤)	'00년산	227	132	30	93
	'01년산	210	122	41	84
'01/'00 증감률(%)		△7.7	△7.5	36.7	△9.3

### 3.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 가. 개황

- 금년 과채류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가격이 좋았던 원인은 전반기에는 가뭄 등으로 정식면적이 줄어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이고, 후반기에는 기후조건이 좋아 과채품질이 좋았기 때문임.
- 12월에 출하될 수박, 오이, 호박의 물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채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 11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가격이 좋지 않았던 오이, 호박, 토마토는 줄고, 지난해 가격이 좋았던 수박, 참외는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12월 이후 정식의향면적은 올해 초 가격이 좋았던 토마토, 참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과채류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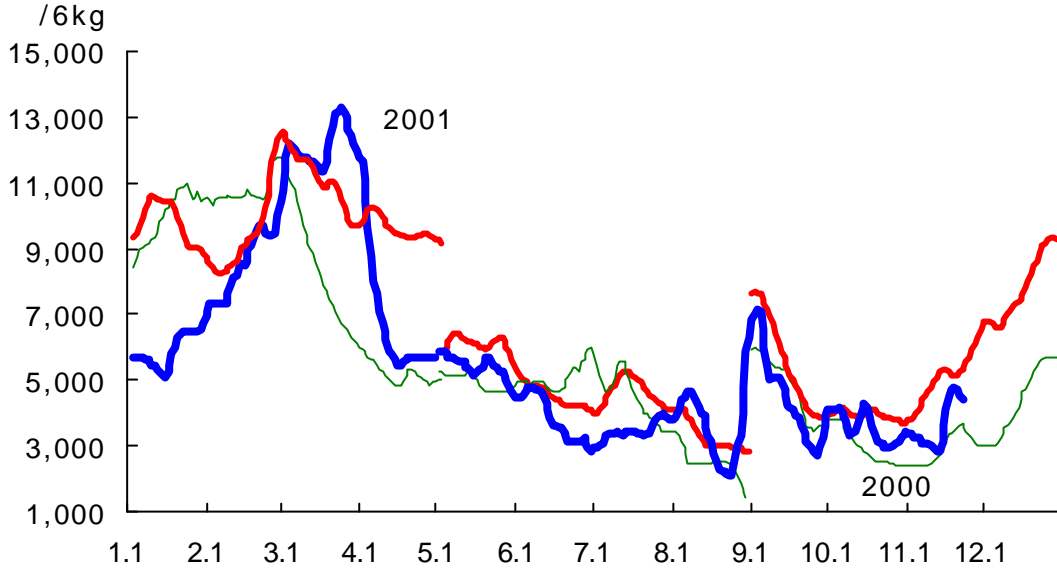
	1~10월 평균가격		11월 상·중순 평균가격	
	작년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작년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수 박	<b>△7</b>	<b>△37</b>	38	<b>△56</b>
참외	1	<b>△7</b>	<b>△8</b>	<b>△15</b>
토마토	39	0	<b>△27</b>	<b>△31</b>
방울토마토	18	<b>△22</b>	6	<b>△38</b>
호박(쥬키니)	9	13	427	51
호박(애호박)	7	<b>△13</b>	108	16
오이(취청)	14	13	132	61
오이(백다다기)	14	0	111	41
메론	<b>△9</b>	<b>△23</b>	14	1
가지	<b>△8</b>	<b>△17</b>	<b>△28</b>	<b>△26</b>

주 :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11월 수박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가격은 지난해(상품 2,925kg/6kg)보다 38% 높으나, 평년(상품 5,129원/6kg)보다는 56% 낮은 수준임.
-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까지의 정식의향면적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 축성 재배의향면적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11~12월에는 늘고, 1월에는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축성 재배의향면적은 2~3월에는 늘어나나, 4월 정식은 장마기에 출하되어 가격이 좋지 않고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4월 정식의향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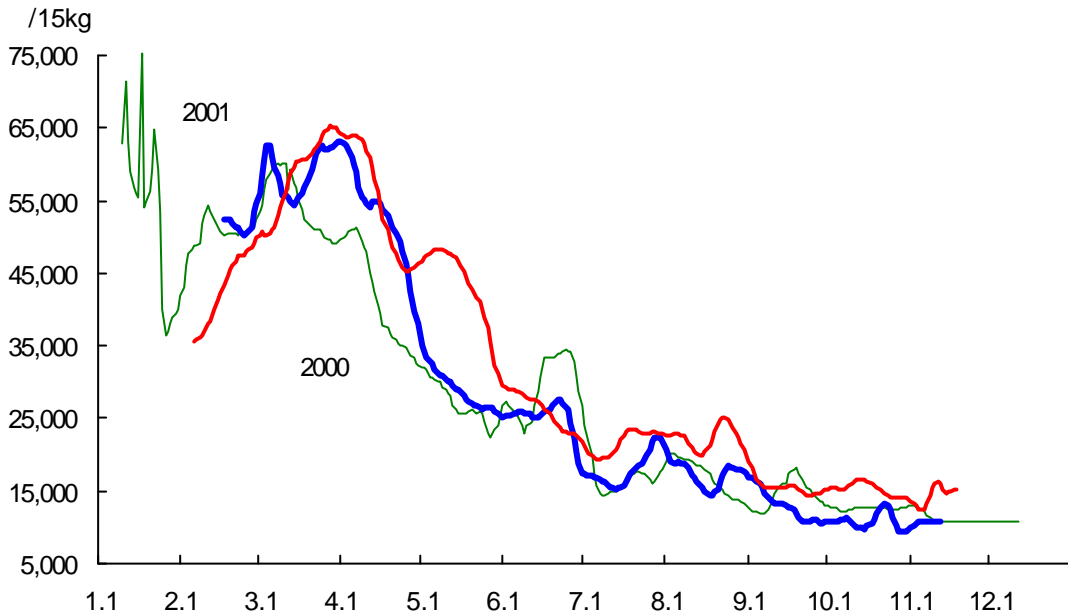
< 지난해 대비 정식의향면적 증감률 >

(단위: %)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합계
2.2	1.8	△0.7	3.8	8.9	△6.3	0.6

다. 참외

< 참외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11월 참외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가격이 평년(상품 12,748원/15kg)보다 15% 낮고, 지난해(상품 11,423원/15kg)보다는 8% 낮은 수준임.
-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까지 정식의향면적이 올해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재배의향이 늘어나는 것은 올해 참외가격이 평년에 비해 낮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높았기 때문임.
- 축성 재배의향면적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11~12월에는 늘고 1월에는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반축성 참외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8%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주산지인 영남지역은 올해 면적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면적이 줄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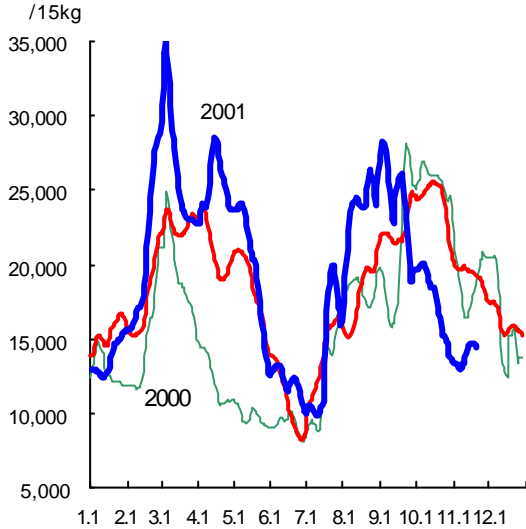
< 지난해 대비 정식의향면적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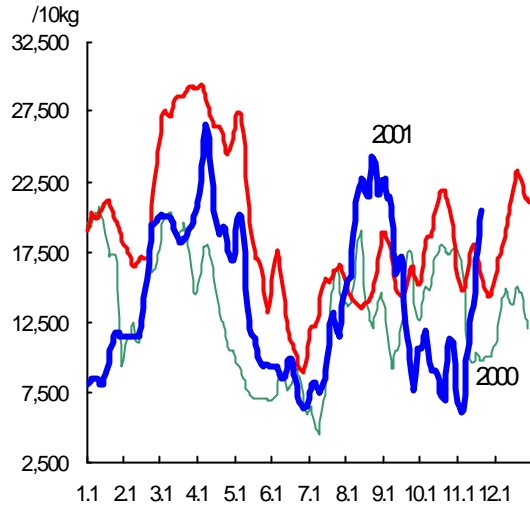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합계
9.8	11.9	△1.0	△8.7	△8.0	0.0	0.7

## 라.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11월 일반토마토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27% 낮은 수준이고, 방울토마토 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6% 높은 수준임.
- 12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지난해 같은시기(상품 15,700원/15kg)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방울토마토 12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지난해 같은시기(상품 13,300원/10kg)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대 일본 수출여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유가상승 우려로 겨울철 가온재배를 피하려는 농가가 늘어 11~1월 정식의향 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 2~3월 무가온재배의 정식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의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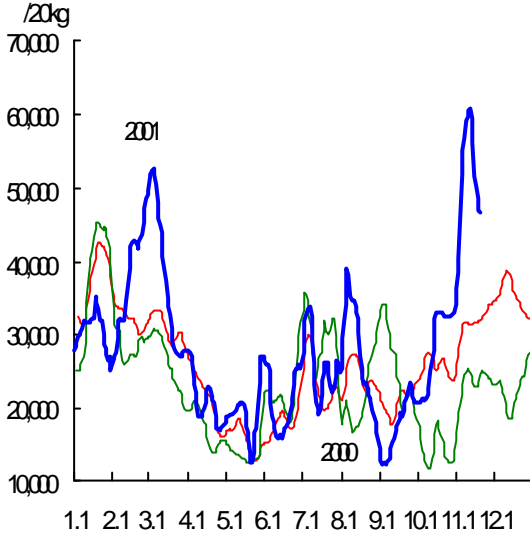
<지난해 대비 출하량 및 정식(의향)면적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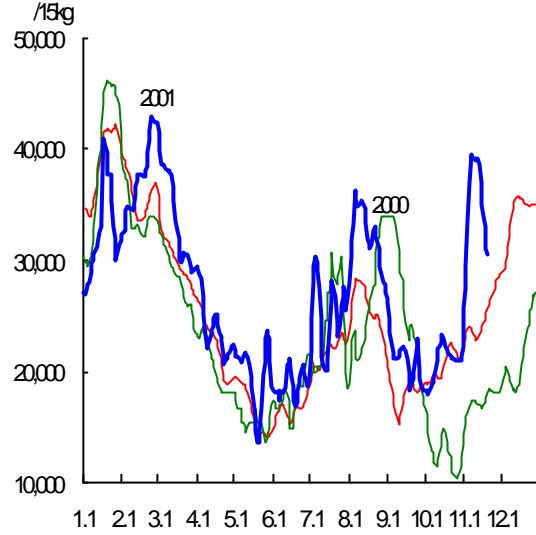
	12월 예상출하량	정식(의향)면적	
		11월	12월
일반토마토	9.0	△0.2	△0.2
방울토마토	△1.0	△1.0	△4.6

마. 오이

<취청 도매가격(상품)>



<백다다기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11월 오이 출하물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취청 상품: 50,100원/20kg, 백다다기 상품: 33,800원/15kg)보다 99~120% 높은 수준임.
- 12월의 취청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7% 적을 것으로 보여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12월의 백다다기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4~6%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11월 정식(의향)면적은 유가 상승 우려로 겨울철 가온재배를 피하려는 농가가 늘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12월 이후 내년 3월까지 정식(의향)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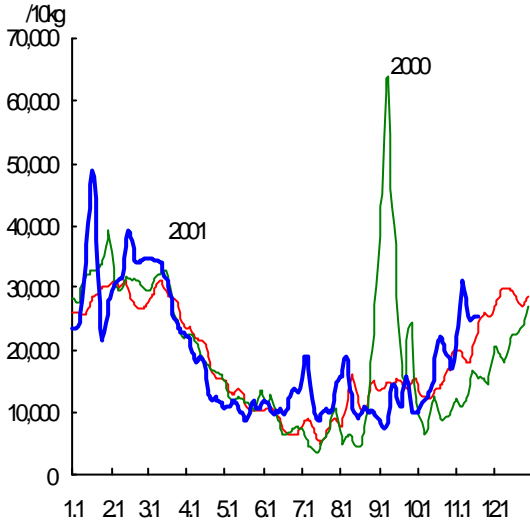
< 지난해 대비 출하량 및 정식(의향)면적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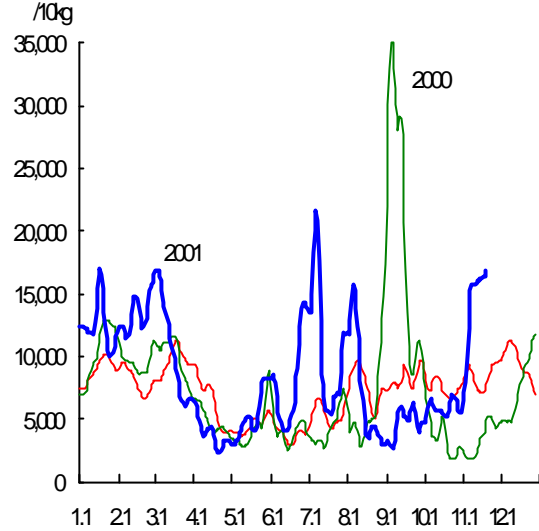
	12월 예상출하량	11월 정식(의향)면적	12~3월 정식(의향)면적
취 청	△4.7	△0.8	3.8
백다다기	△4.9	△6.8	2.6

바. 호박

<애호박 도매가격(상품)>



<쭈키니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11월 호박 출하물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 (애호박: 13,789원/10kg, 쭈키니: 3,279원/10kg)보다 108~427% 높은 수준임.
- 12월의 애호박 출하예상량이 지난해보다 1~5%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지난해(21,400원/10kg)보다 높으나 평년수준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12월의 쭈키니 출하예상량도 지난해보다 2%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6,900원/10kg)보다 높은 평년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1월 이후 호박정식의향면적은 올해 가격이 높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대비 출하량 및 정식(의향)면적 증감률 >

(단위: %)

	12월 예상출하량	11~12월 정식(의향)면적	
		11월	12월
애 호 박	△3.0	△2.1	5.9
쭈 키 니	△2.0	△1.7	1.3

## 4. 축산

### 가. 개황

- 10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출하물량 감소로 9월에 비해서 60% 감소하였고, 한우 가격 상승으로 10월 쇠고기 수입량은 9월에 비해 47% 증가하였음.
-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하반기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도축물량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은 11월 중순까지 상승한 후 하순까지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설까지 가격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10월부터 하락하던 성돈 산지가격이 민간수매비축으로 11월에는 17만원대까지 상승하였으며, 12월에는 출하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격은 16만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이후 계란소비가 감소하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11월 7일 이후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11월 계란 월 평균가격은 특란 10개에 837원으로 지난해 11월보다 7.5% 높음.
- 육계가격은 11월초에 출하가 증가하여 kg당 1,200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공급이 감소하면서 반등하여 10일 이후에는 1,400대를 유지하고 있음. 11월 육계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9.1% 상승한 kg당 1,377원임.

### < 11월 축산물 가격 동향 >

단위 : %

	1~10월 가격		11월 가격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sup>1)</sup>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sup>2)</sup>
한우(큰수소)	15.0	21.8	51.5	67.4
한우(수송아지)	34.5	54.6	58.0	73.0
돼지	△0.1	△3.4	27.5	△0.3
육계	13.5	13.6	39.1	46.8
계란	26.7	16.6	7.5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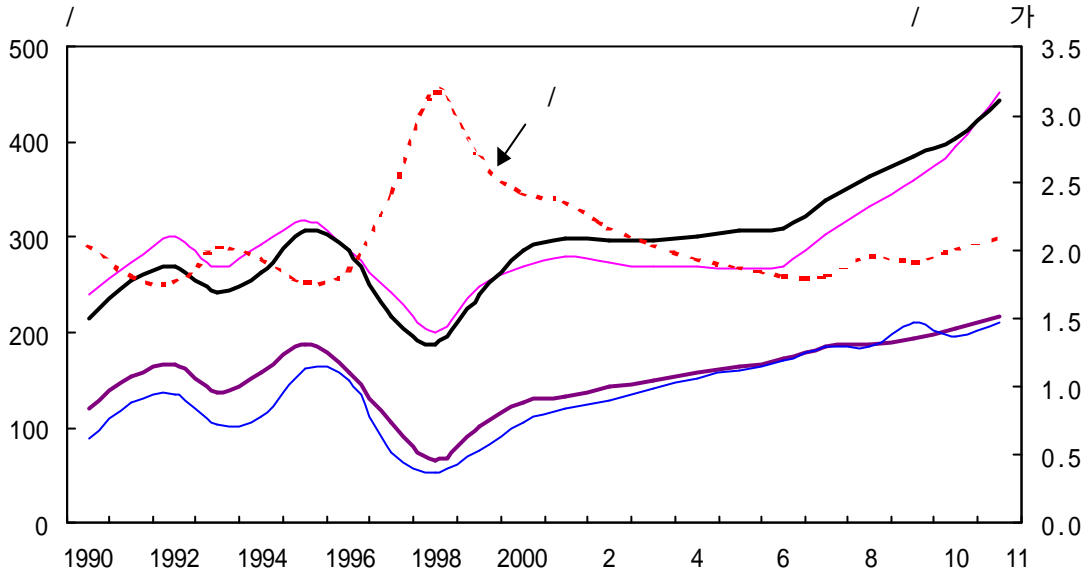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11월 가격은 1~3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나. 한육우

### < 가격동향 >



주: 2001년 11월 가격은 1~3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 < 한우 가격 등락률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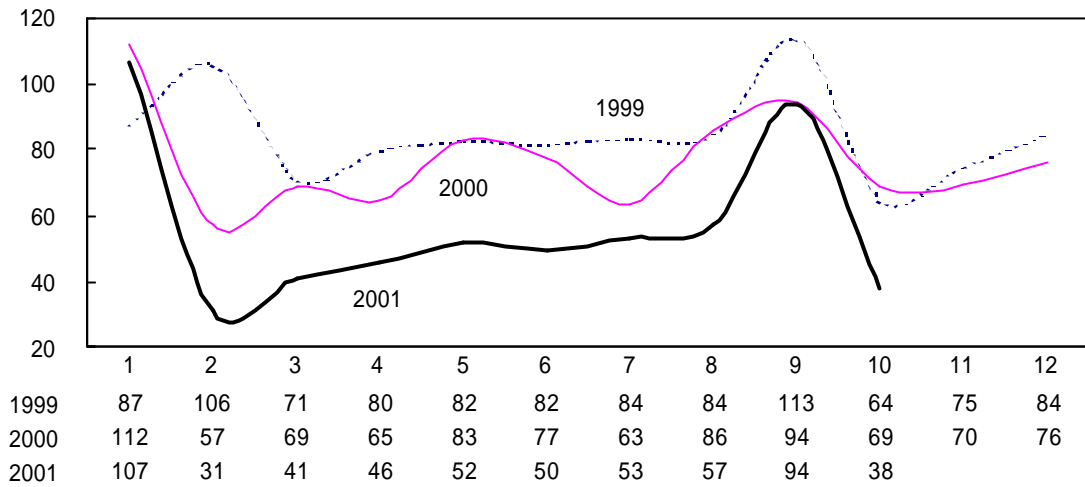
	1~10월 가격		11월 가격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큰수소	15.0	21.8	51.5	67.4
큰암소	17.2	38.2	49.4	76.5
수송아지	34.5	54.6	58.0	73.0

주: 1.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11월가격은 1~3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 사육두수 감소로 도축물량이 부족하여 수소산지가격은 10월에 이어 11월 중순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고,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약 470만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11월 수소산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52% 상승함.
- 큰소가격 상승과 암소두수 감소에 따른 산지 밀소 부족으로 수송아지가격은 11월에 지난해 11월보다 58% 상승하여 큰소보다 가격 상승폭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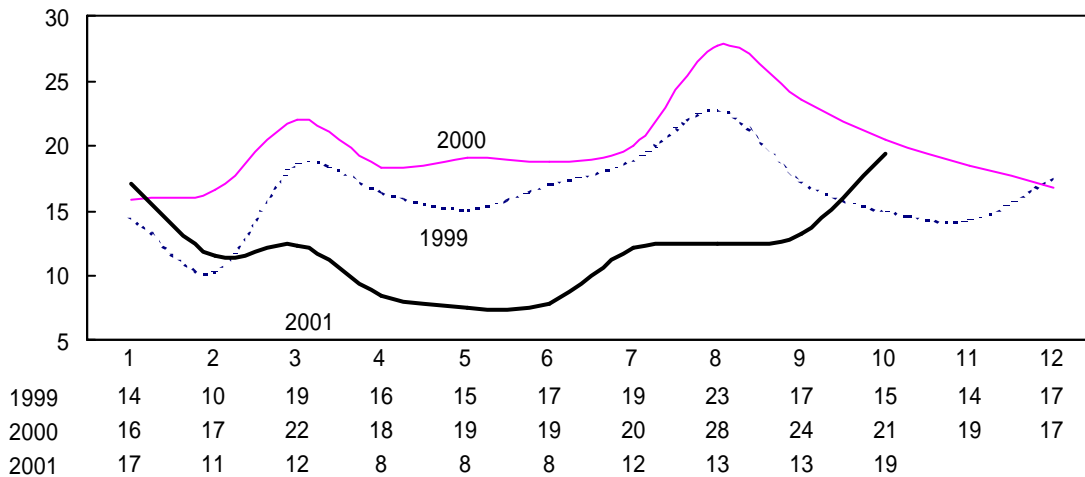
###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 올 7~9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20만 4천두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하였고, 추석이 끝난 10월에는 9월에 비해 도축두수가 60% 감소하였음.

###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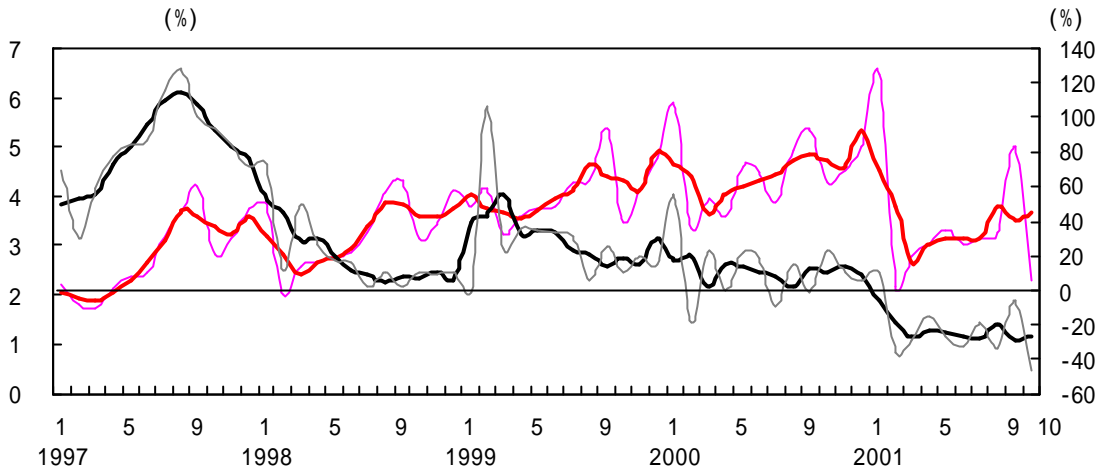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올 7~9월 쇠고기 수입은 3만 8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한우 가격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이 9월에 비해 47% 증가하여 지난해 가격수준에 근접함.



<한육우 큰암소 월간 도축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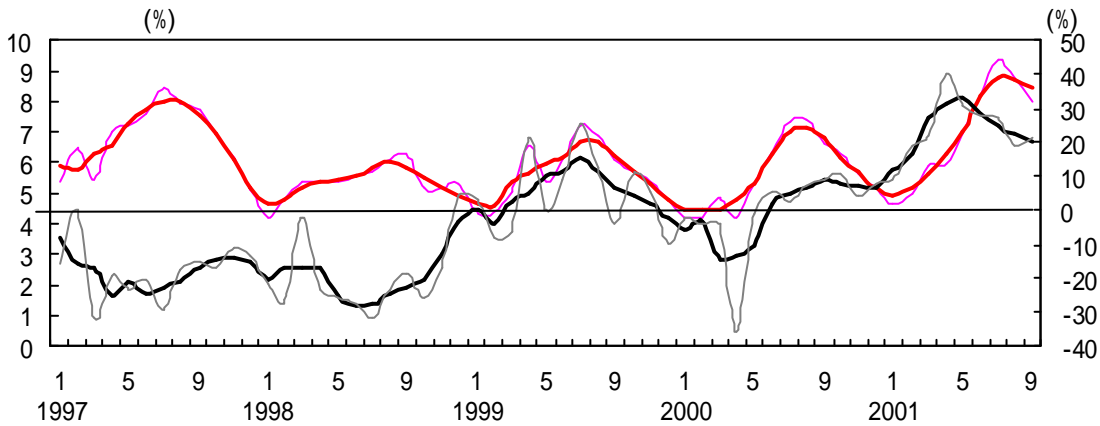


주: 월간도축율 =  $\frac{\text{월별 도축두수}}{\text{월별 1세이상두수}}$

자료: 농림부 자료를 이용하여 농경면에서 계산.

- 9월 큰암소 월간도축율은 지난해 9월보다 6% 감소하였으나, 추석이 지난 후 암소도축이 감소하여 10월 큰암소 월간도축율은 지난해 10월보다 46% 감소하였음.

<한육우 월간 인공수정율 변화추이>



주: 월간 인공수정율 =  $\frac{\text{월별 인공수정두수}}{\text{월별 1세이상암소두수}}$

자료: 농림부 자료를 이용하여 농경면에서 계산.

- 8월 한육우 월간인공수정률은 지난해 8월보다 19% 증가하였고, 이런 번식의향 회복추세는 9월에도 이어져, 9월 월간인공수정율은 지난해 9월보다 21% 증가하였음.

**< 한육우 사육두수 전망 >**

단위 : 천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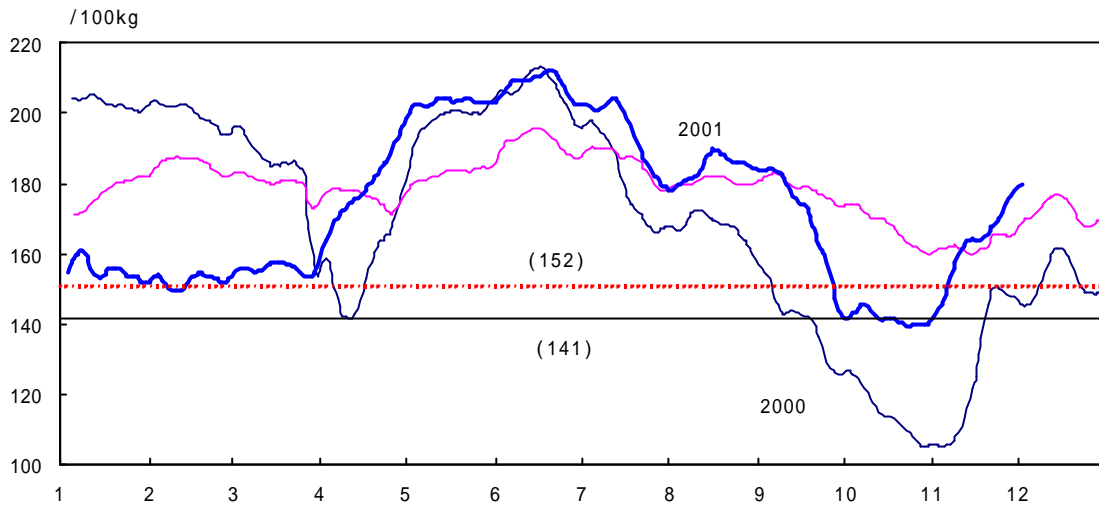
기간	송아지 생산두수	도축두수				순증가분	한육우 사육두수
		암소	수소	합계	암소비율		
							'01년 9월 : 1,485
9 ~11월	114	69	96	175	41.1	△ 62	'01년 12월 : 1,423
12 ~2월	127	64	89	153	41.8	△ 26	'02년 3월 : 1,397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작년 상반기부터 번식의향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올 9월까지 인공수정  
율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 연말부터는 송  
아지 생산두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올 연말부터는 송아지생산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연말연시에는 쇠  
고기에 대한 수요가 커 도축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육우 사  
육두수는 내년 3월에 140만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산지가격이 높아 수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2월 한육우 도축두수가 올해에 비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되어, 한우 산지가격은 내년 설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다.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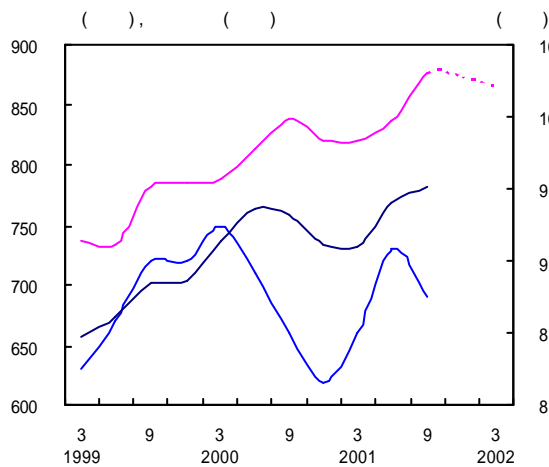
< 성돈 산지가격동향 >



주: 5일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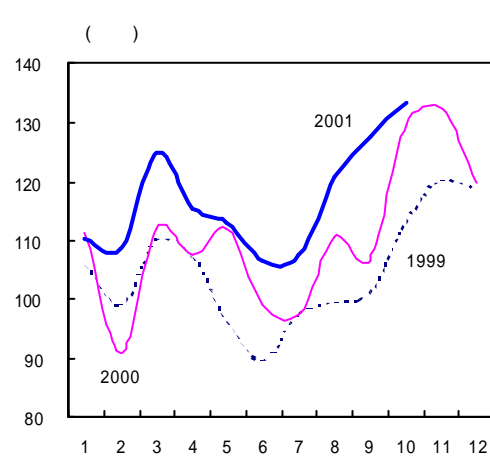
- 9월 들어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로 성돈 산지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10월 25일부터 민간수매가 시작되면서 11월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1월 평균 산지가격은 16만 2천원이었음.
- 현재 사육규모를 유지하려는 의향이 높지만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올 12월 사육두수는 9월보다 0.3% 감소한 874만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12월 출하두수가 11월보다 다소 증가하나 연말소비로 가격은 16만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 돼지 총두수와 모돈수 >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01.12, '02.3월은 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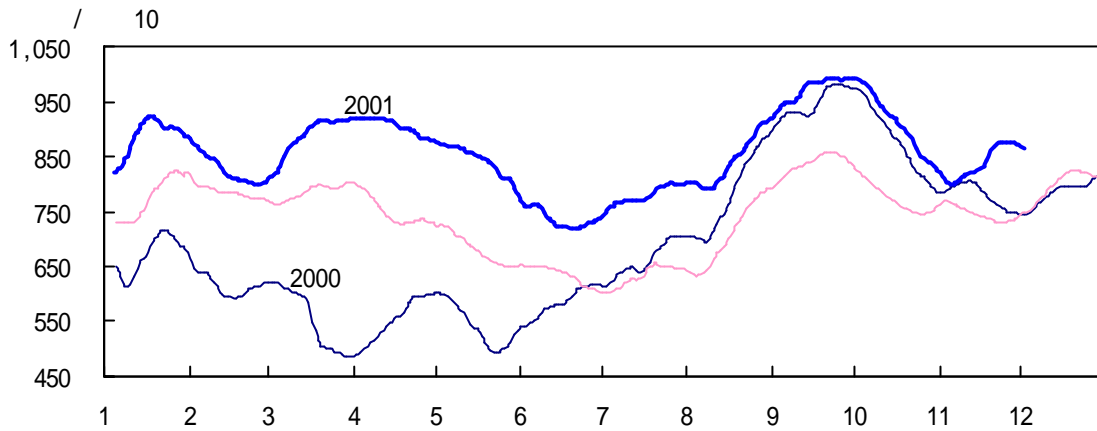
< 월별 도축두수 >



자료: 농림부.

## 라.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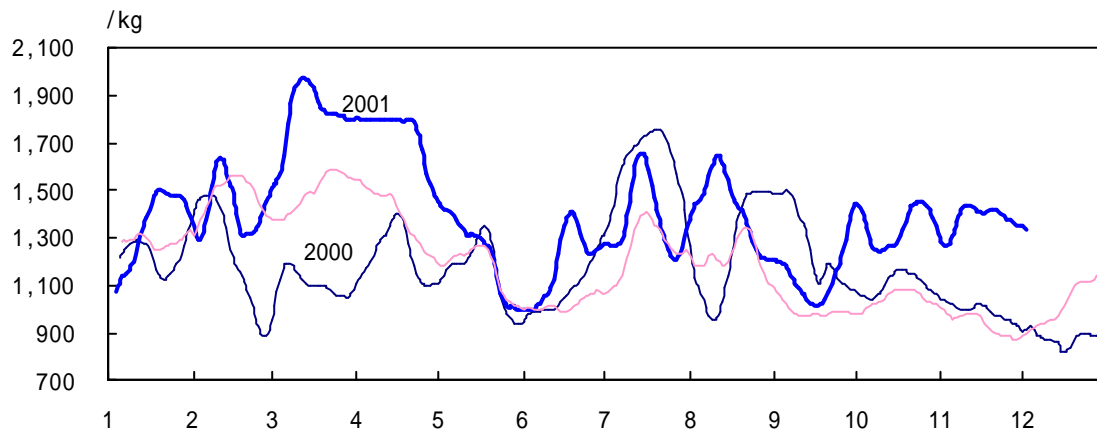
< 계란 산지가격동향 >



주: 5일이동평균가격.

- 추석이후 소비 감소로 하락하기 시작한 계란가격은 11월초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11월 7일 이후 노계도태와 환우의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승하여 11월 계란가격은 특란 10개에 837원에 달함. 12월 계란가격은 연말 소비 증가로 11월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 육계 산지가격동향 >



주: 5일이동평균가격.

- 11월초 육계가격은 추석직후에 입식된 물량이 출하되어 일시적으로 kg 당 1,200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승하여 10일 이후에는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12월 평균 육계가격은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kg당 874원)보다 높은 1,200~1,300원이 될 전망이다.

### Ⅲ. 지역 언론 동향

## <지방일간지 23종에 보도된 11월중 농업관련 주요 이슈>

### ■ 보도 개황

- 11월에도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농민시위가 각 지역에서 벼 적재와 현물납세 등으로 수위를 높여 확산됐으며, WTO 뉴라운드 출범, 중국의 WTO 가입, 양곡유통위원회의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건의 등 농업 분야의 이슈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보도량이 농업관련 기사의 60~70%에 이를 정도로 비중있게 취급됨.
- 이와함께, 쌀값 하락에 이은 무·배추 등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약세로 농촌지역에 돈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주요 기사로 취급됐으며, 논농업직불제 개선 여론과 농지관련법 개정 요구, 한우값 강세와 돼지가격 회복세에 대한 기사도 전체 농업관련기사의 10~15%를 차지했음.

### □ 내년 추곡수매가 인하 움직임에 농민들 반발

- 쌀값 안정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농민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쌀관련 보도량이 11월들어 현저히 줄어들다 11월 하순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 추곡수매가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자 농민들은 쌀농업 포기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 최소한 6.6% 인상은 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위를 계속해 보도량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 중앙언론이 양곡유통위원회의 사상 첫 수매가 인하 건의에 대해 불가피성을 역설한 반면, 지역언론들은 이를 경쟁력이 없는 우리 쌀값을 국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농가 소득보전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 일부 신문은 농민들의 반발이 커 수매가 인하는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 뉴라운드 출범·중국 WTO 가입에 농가 긴장

- 11월9일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분야가 집중적인 협상의제로 떠오르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각 지역 언론은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역별·품목별 이해득실을 분석해 보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임.
-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속속 발표했으며, 언론들도 특집 기사를 다루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당해지역의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 □ 농지관련 보도 집중 취급

- 쌀값 하락 등으로 나타난 벼농사 환경 변화와 각종 농산물 가격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논과 밭, 과수원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완화 요구를 시작으로 농지거래 제한을 풀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불법전용과 부재지주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농지와 관련한 보도가 다수 취급되고 있음.

## □ 논농업직불제 개선 여론

- 쌀농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농가 소득보전대책의 하나로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경남지역에서도 현행 직불제가 보조금이 너무 적고, 대상면적도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혜택범위 확대 등 논농업직불제 개선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비중있게 취급됐음.

## □ 보리 과잉생산 우려

- 전량수매되는 보리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인식되면서 재배면적이 급증, 경기와 충북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보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쌀에 이은 보리 파동을 우려하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음.

## □ 돼지가격 회복 조짐·한우가격 강세 지속

- 최근 하락세를 계속해 1백kg 마리당 14만원까지 하던 산지돼지값이 11월 중순 16만원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우값은 강세를 지속해 5백kg 마리당 5백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V. 이달의 집중분석:  
2001년 농가소득 추계

## 1. 소득추계 방식

### 1.1. 농업소득

#### 1.1.1. 경종작물 : 조수입 - 경영비

- 조수입 : 생산량(=단수×재배면적) 및 가격(농가판매가격 및 가락동 도매 시장 가격)자료에 기초하여 계산. (단 가격은 출하기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된 전량이 출하기 동안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
- 경영비 : 기준년도 생산비 조사자료인 표준소득(농촌진흥청)에 근거하여 10a당 비목별 비용을 계산한 후 비교연도의 투입재 가격등락 및 물량증가분을 고려. (기술발전에 의한 비용절감 부분은 무시)
- 해당 품목 : 특작을 제외한 주요 경종작물 20개 품목

#### 1.1.2. 축산물 : 자산평가방식 (산동물 및 도축부분을 분리 평가)

- 조수입
  - 산동물은 추계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축종별 분기 평균가격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연도사이의 가치평가 순증감분을 추산
  - 도축부분은 도축가격 및 도체중량을 활용
- 경영비 : 축종별 생산비 조사자료(품관원)에 기초하여 경종작물과 유사한 방법 적용

### 1.2. 농외소득 : 소득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량경제모형을 설정, 모수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추산(부록 참조)

### 1.3. 농가소득 추계(예) : 2000년 농가소득의 경우

- 통계청 발표(2001. 6) 2000년 농가소득 : 23,072천원
- KREI 발표(2001. 1) 2000년 농가소득 : 22,992천원(2001년 명목가격)  
오 차 : 80천원 (0.35%)

## 2. 2001년도 농가소득 추계결과

### 2.1. 총농업소득

#### 2.1.1. 경종부문 총소득

- 경종부문 농업 총소득은 전년대비 약 3.2%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었음.
  - 사과와 고추, 그리고 과채류(수박제외)의 소득이 증가한 반면 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류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과일의 경우 11월 가격이 좋아 향후 소득감소폭이 줄 것으로 예상
- 쌀 가격하락이 전체 경종부문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 요인

표 1. 경종부문의 소득 :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생산량	가격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비중	
식량작물					△1.4	70.2	
쌀	4.9	△48	△0.1	6.5	<b>△3.1</b>	64.4	
보리	69.1	3.7	75.4	35.6	110.0	1.8	
콩	4.2	△12.7	△9.1	2.0	△9.8	1.2	
감자	△2.6	19.4	16.1	3.6	26.0	1.6	
과일류					△8.6	8.2	
사과	△11.2	31.2	16.5	△6.8	<b>35.6</b>	3.4	
배	14.2	△20.7	△9.4	14.1	△29.6	1.3	
포도	△0.8	△14.0	△14.7	△1.2	△21.7	3.1	
감	△7.7	△9.5	△16.6	△1.3	△28.8	0.3	
감귤	13.6	△24.8	△17.1	△3.1	△38.8	0.2	
양념채소					△5.9	12.6	
고추	△6.9	15.6	7.6	△1.5	<b>10.4</b>	9.6	
마늘	△13.7	△12.9	△24.8	△16.0	△33.5	1.5	
양파	22.0	△42.8	△30.2	15.6	△51.7	0.7	
대파	△2.6	△8.4	△10.7	3.7	△18.9	0.8	
엽근채소					△31.9	2.4	
무	△2.7	△9.8	△11.6	1.8	△20.2	0.9	
배추	△1.9	1.4	1.1	4.1	△1.9	1.5	
과채류					<b>6.9</b>	6.6	
수박	△5.0	△14.5	△18.8	△2.4	△31.5	1.7	
토마토	1.5	61.7	64.1	4.0	<b>130.4</b>	1.7	
참외	0.1	6.0	6.2	0.6	<b>10.3</b>	1.9	
오이	△4.0	11.1	6.3	1.9	<b>10.6</b>	1.3	
총 계					<b>△3.2</b>	100.0	

### 2.1.2 축산부문의 총소득

- 축산부문 총소득은 축산물의 전반적인 가격호조로 전년대비 약 24.6%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음.
- 한우의 경우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소득이 약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양돈 및 낙농부문은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의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소득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임.
- 양계의 경우 산지가격이 대폭 상승해 소득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육계는 연초 출하물량 부족과 함께 내수증가로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

표 2. 축산부문의 소득 :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사육두수	도축두수	경영비	가 격	소 득	소득비중
한우		△6.6	△27.2	9.0	14.4	<b>4.1</b>	39.1
낙농 <sup>㉑</sup>		1.5	7.0	7.9	4.7	<b>27.2</b>	18.3
양돈		4.7	7.7	5.1	3.0	<b>28.2</b>	30.4
양계	육 계 <sup>㉒</sup>	13.0	12.7	3.9	15.5	<b>88.4</b>	12.2
	산란계 <sup>㉓</sup>	1.1	2.6	5.1	21.2		
총 계						<b>24.6</b>	100.0

주. 2001년 가격은 3/4분기 가격임

1) 육계의 가격은 Kg당 가격

2) 산란계의 경우 가격은 특란기준이며 도축두수는 계란생산량임.

3) 낙농에서 도축두수는 우유생산량을, 가격은 젖소 초임만삭가격을 의미.

### 2.1.3 농업총소득

-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을 함께 고려하여 2001년 농업총소득을 추산하면 축산소득의 대폭적 증가가 경종소득의 감소를 훨씬 상회하여 농업총소득은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2. 농외소득

- 2001년 호당 농외소득은 이전수입을 제외할 경우 약 788만 천원으로 추정되어 전년(743만 2천원)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을 포함하면 전년(1,217만 5천원)대비 약 4.9% 증가한 1,277만 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사업이외의 소득은 농가의 농외취업자수 증가(약 3.4% 증가)와 농촌 임료금 상승(6.2%)에 힘입어 전년(599만 7천원)대비 약 6.6% 증가한 639만 5천원으로 추정됨.
- 겸업소득은 소매판매 및 농업서비스 판매액 증가(약 3.5% 증가)에 따라 전년(143만 5천원)대비 약 3.6% 증가한 148만 6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이전수입은 약 489만원으로 추정되어 전년(474만 3천원)대비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3. 2001년 농외소득 추계

단위: 천원

	농외소득 (이전수입포함)	농외소득			이전수입
		소계	사업외소득	겸업소득	
1999	11,757	7,034	5,550	1,484	4,723
2000	12,175	7,432	5,997	1,435	4,743
<b>2001</b>	<b>12,771</b>	<b>7,881</b>	<b>6,395</b>	<b>1,486</b>	<b>4,890</b>
1999/2000 증감률(%)	3.6	5.7	8.1	△3.3	0.4
2000/2001 증감률(%)	4.9	6.0	6.6	3.6	3.1

### 2.3. 2001년 호당 농가소득

- 2001년 호당 농가소득은 2001년 농가호수 전망에 대한 가정에 따라 전년대비 3.7%~4.9% 증가한 2,392만 7천원에서 2,420만 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
- 가정 1 : 시장개방직전의 시기(1990-95)의 증감률 적용:  $\Delta 3.2\%$   
138만 4천호 (2000)  $\Rightarrow$  약 134만호 (2001 : 4만 4천호 감소)
- 가정 2 : 시장개방이후의 시기(1995-00)의 증감률 적용:  $\Delta 1.6\%$   
138만 4천호 (2000)  $\Rightarrow$  약 136만 2천호 (2001 : 2만 2천호 감소)
- 가정 3 : 장기증감추세 적용 (매5년 마다 50% 하락) :  $\Delta 0.8\%$   
138만 4천호 (2000)  $\Rightarrow$  약 137만 3천호 (2001 : 1만 천호 감소)

표 4 2001년 호당 농가소득 추계

단위: 천원

		2000년	2001년		
			가정1	가정2	가정3
농가호수 (천호)		1,384	1,340	1,362	1,373
농가소득	소계	23,072	<b>24,206</b>	<b>24,019</b>	<b>23,927</b>
	농업소득	10,897	<b>11,435</b>	<b>11,248</b>	<b>11,156</b>
	농외소득	7,432	7,881		
농가소득 증감률(%)			49	41	37
도근소득 추정치		28,643	30,092		
농가소득/도근소득(%)		80.6	80.4	79.8	79.5

### 3. 추계결과의 함축성

#### □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 여전히 높은 수준

○ 2001년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농업소득/농가소득)는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한 46.8%로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수준(43.4%) 보다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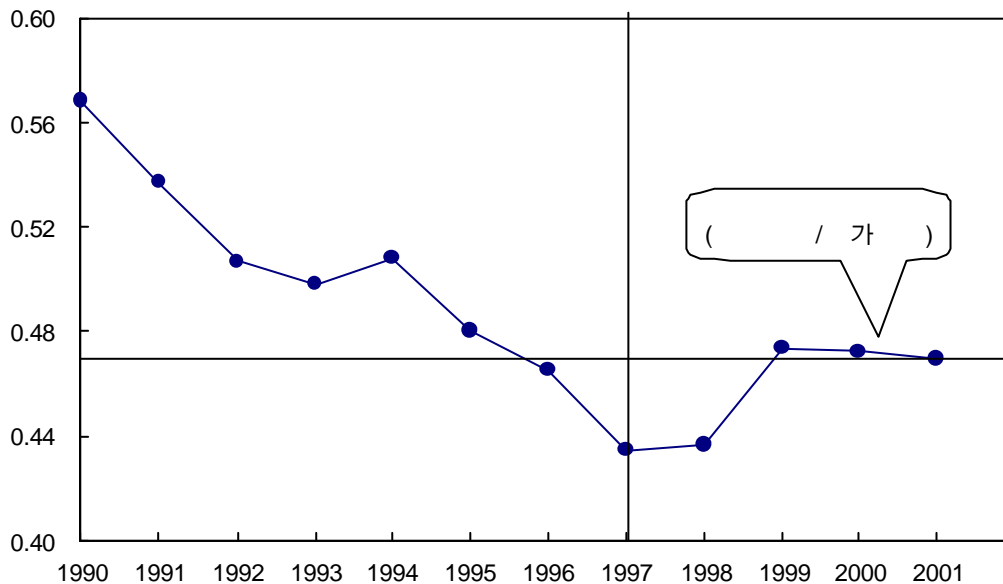
- 농업의존도는 그 동안 계속해서 낮아져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농외소득 부진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56.8% (1990) ⇒ 48.0% (1995) ⇒ 43.4% (1997) ⇒ 47.2% (2000)

\* 일본 13.8% (1990) ⇒ 16.2% (1995) ⇒ 13.7% (1997) ⇒ 13.0% (2000)

\* 대만 20.1% (1990) ⇒ 19.8% (1995) ⇒ 17.1% (1997) ⇒ 18.2%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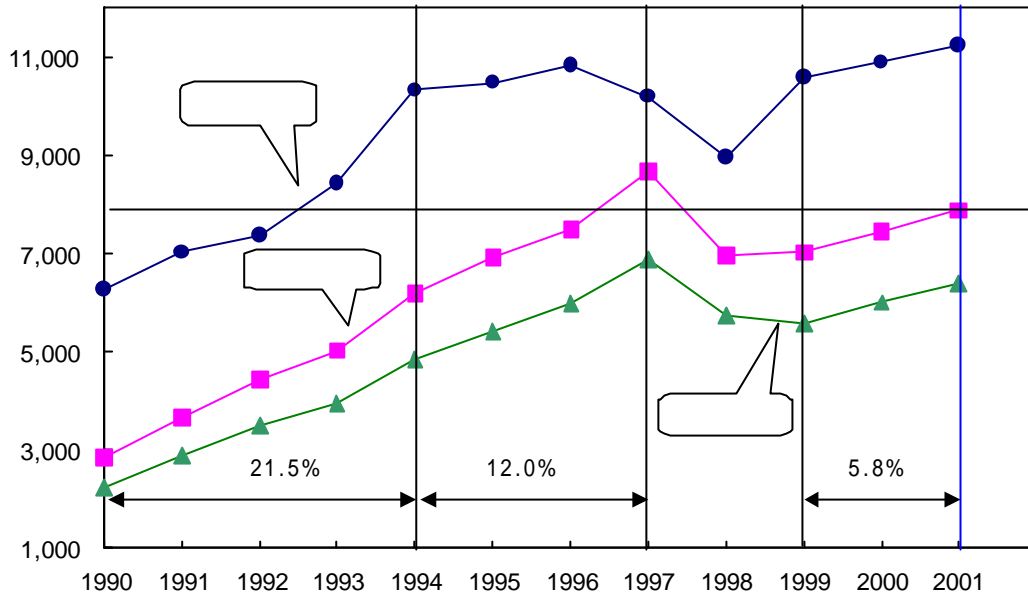
그림 1.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 추이: 1990~2001



- 농외소득은 외환위기 영향으로 하락한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9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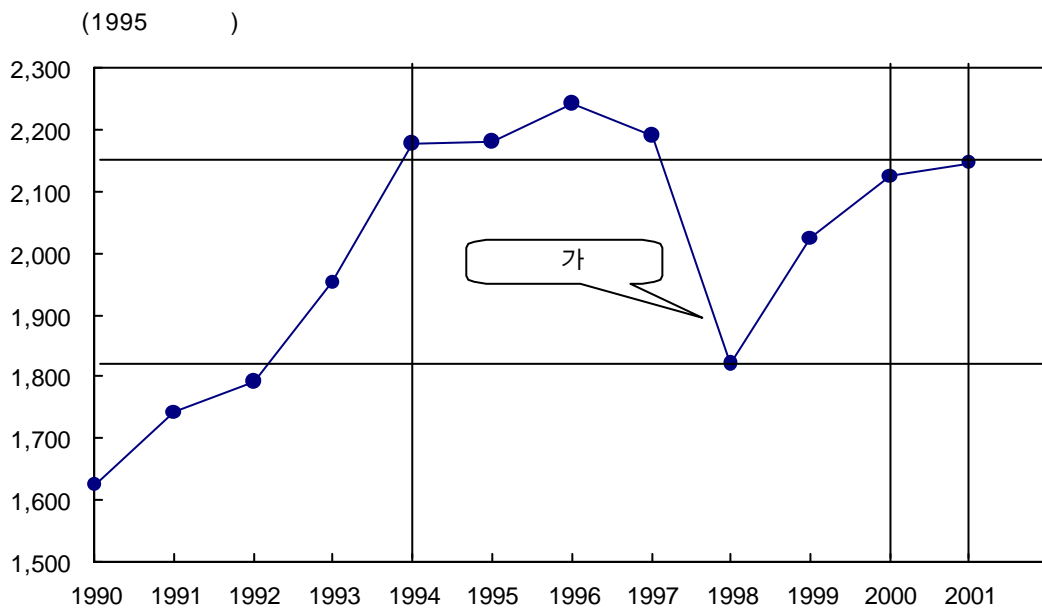
- 외환위기이후 증가율도 이전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5.8%)

그림 2. 호당 농업, 농외소득의 변화추이: 1990~2001



□ 2001년 실질 농가소득은 전년대비로는 1.0% 증가한 수준이나 여전히 90년대 중반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그림 3. 호당 실질 농가소득 추이: 1990~2001





<부록> 농외소득추정 관련 계량모형

1. 사업이외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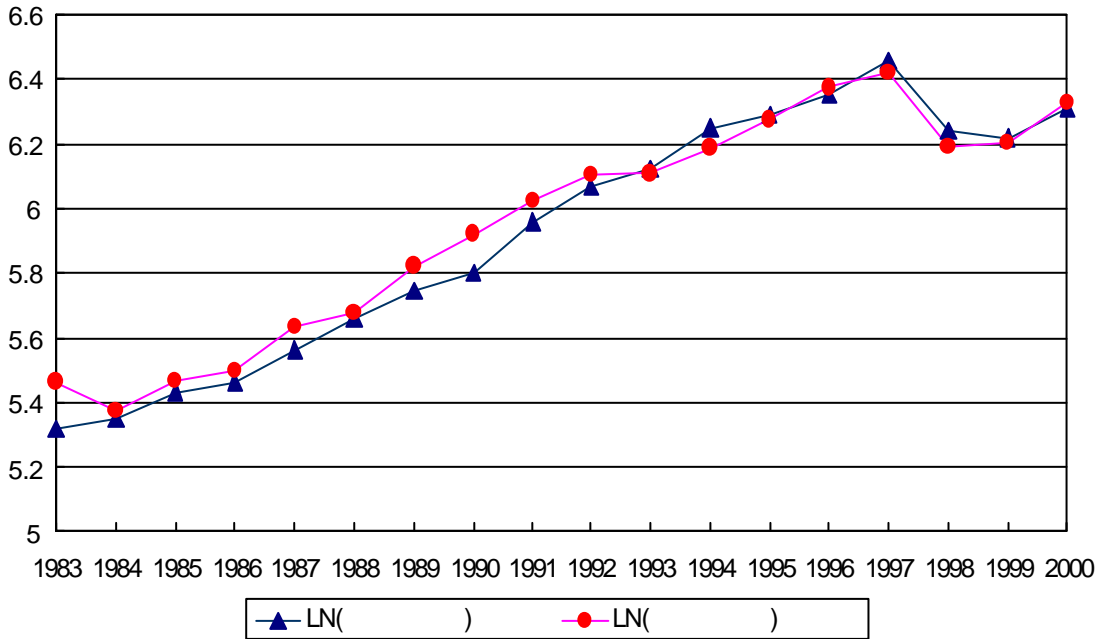
- 사업이외의 소득의 주요 소득원인 “임금 및 급여”는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를 고려하되, 전체적으로 농가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내 경제활동인구 중 농외취업자 수의 비율인 **농외취업비율**을 이용하여 추산
- 임금을 고려하기 위하여 산업별(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 또는 직종별(단순노무직, 단순기능직, 전문직, 농업근로자, 서비스업근로자 등) 임금을 고려하여 추산.

○ LN(사업이외소득)

$$= -0.1699 + 0.6093 \cdot \text{LN}(\text{농외취업비율}) + 0.9575 \cdot \text{LN}(\text{전산업임금})$$

(-0.4515) (2.1290) (6.8012)

+ 보정계수



## 2. 겸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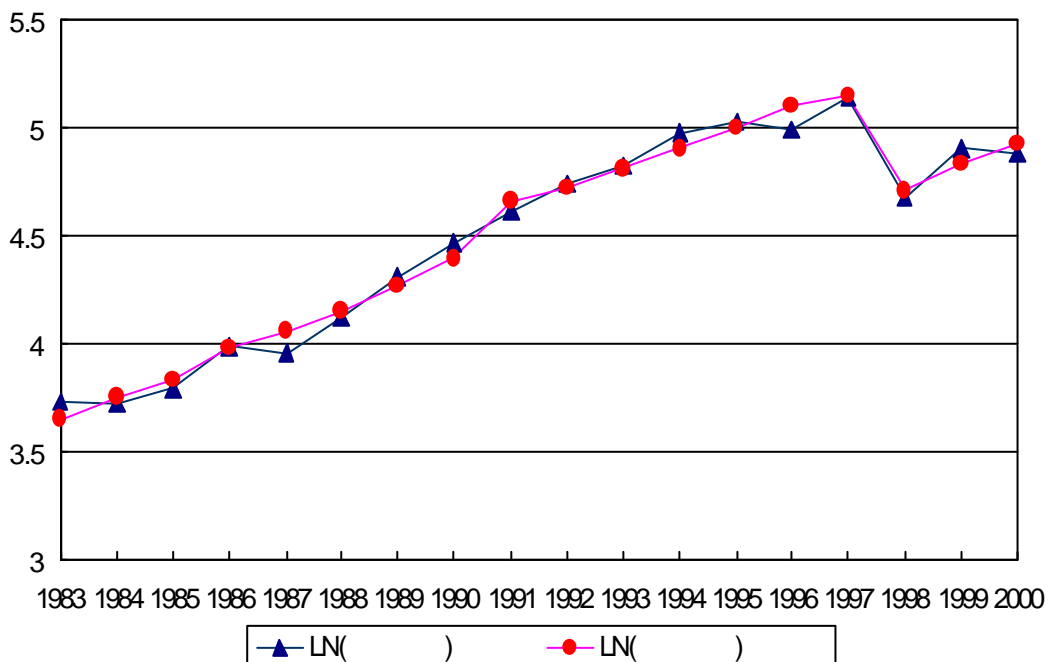
- 겸업소득 중 농가의 농업이외의 사업(임업, 어업, 상공광업, 서비스업)에서 얻은 소득은 대부분 농가가 직접 경영하는 소규모 상업 내지는 서비스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소매업 판매지수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
- 산나물 채취 및 어류 등을 포획하여 판매한 수입부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 LN(겸업소득)

$$= -1.1124 + 0.9784 \cdot \text{LN}(\text{소매판매지수}) + 0.3206 \cdot \text{LN}(\text{농수산물가})$$

(-1.7474)    (2.5305)
(0.6549)

+ 보정계수



### 3.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사례금, 공·사적 보조금, 경조비, 퇴직일시금”등으로 이루어지며, 타인보조 및 사례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74.3% (1983) → 88.0% (2000) )
- 비경제적 활동에 의한 타인보조는 친인척 및 공적보조금으로 일반 경제활동 및 농촌경제 활동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아 1인당 GDP와 이전수입을 제외한 농가소득을 활용하여 추산.
- LN(이전수입)
 
$$= -2.6495 + 0.5406 \cdot \text{LN}(1\text{인당GDP}) + 0.6795 \cdot \text{LN}(\text{농가소득})$$

$$(-3.6069) \quad (4.0697) \quad (3.2873)$$
 + 보정계수

